

인권정보자료실
R1.1.10

인권하루소식

합본10호
(98년 상반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 (1144호 F86) 포이출판

인권정보자료실
R1.1.10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서울 종로구 창신2동 592-7 T.763-2606 F.745-5604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현황

1998년 8월 28일 현재, 총 402명

이 자료는 민가협이 1998년 8월 28일 현재, 각 대학 총학생회 및 노동조합, 언론, 법원, 교도소, 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조사한 양심수 현황이다

1998년 8월 28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모두 402명이다. 이들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학생 258명, 노동자 62명, 재야 및 기타 56명, 군인 5명, 장기수 21명 이다.

8월 28일 현재 양심수 402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체 402명의 66.7%인 268명이다.

이들을 신분별, 적용법규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신분별 분류

| 총 | 학 생 | 노동자 | 장기수 | 재야 · 기타 | 군 · 경 |
|------|------|-----|-----|---------|-------|
| 402명 | 258명 | 62명 | 21명 | 56명 | 5명 |

• 적용법규별 분류

| 국가보안법 | 특공 | 집시법 | 업무방해 | 폭 력 |
|---------------|------------|---------------|--------------|-------------|
| 268명 66.7% | 7명 1.7% | 171명 42.5% | 44명 10.9% | 28명 6.9% |

• 기결, 미결 분류

기결(119명)

| 총 | 학 생 | 노동자 | 장기수 | 재야 · 기타 |
|------|-----|-----|-----|---------|
| 119명 | 86명 | 2명 | 21명 | 10명 |

미결(283명)

| 총 | 학 생 | 노동자 | 재야 · 기타 | 군 · 경 |
|------|------|-----|---------|-------|
| 283명 | 172명 | 60명 | 46명 | 5명 |

- * 한시암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 군인, 경찰 구속지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 집시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특공 : 특수공무집행방해 / 업무방 : 업무방해

한글서체

독민의 정부 출범이후 구속사 현황

1988년 8월 27일 현재 (총 117명(국외 2명))

• 일반 현황

| 성 | 나이 | 직업 | 교육 | 지역 | 구속기간 | 구속장 |
|---|-----|----|----|----|------|-----|
| 남 | 2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서울 |
| 남 | 3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서울 |
| 남 | 3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서울 |
| 남 | 3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서울 |
| 남 | 3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서울 |
| 남 | 3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서울 |
| 남 | 3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서울 |
| 남 | 3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서울 |
| 남 | 3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서울 |
| 남 | 3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서울 |

- 2명 국외거류(독일의 한인이 독일로 망명한 후 국외거류)
- 1명 국외거류(독일의 한인이 독일로 망명한 후 국외거류)

• 신유형 분류

| 성 | 나이 | 직업 | 교육 | 지역 | 구속기간 |
|---|-----|----|----|----|------|
| 남 | 2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 남 | 2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 남 | 2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 남 | 2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 남 | 2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 남 | 2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 남 | 2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 남 | 2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 남 | 2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 남 | 20대 | 학생 | 고졸 | 서울 | 1년 |

• 직업별 분류

| 직업 | 구속기간 | 구속장 | 지역 | 구속기간 |
|----|------|-----|----|------|
| 학생 | 1년 | 서울 | 서울 | 1년 |
| 학생 | 1년 | 서울 | 서울 | 1년 |
| 학생 | 1년 | 서울 | 서울 | 1년 |
| 학생 | 1년 | 서울 | 서울 | 1년 |
| 학생 | 1년 | 서울 | 서울 | 1년 |
| 학생 | 1년 | 서울 | 서울 | 1년 |
| 학생 | 1년 | 서울 | 서울 | 1년 |
| 학생 | 1년 | 서울 | 서울 | 1년 |
| 학생 | 1년 | 서울 | 서울 | 1년 |
| 학생 | 1년 | 서울 | 서울 | 1년 |

- 간시업에 2명 이상 적용된 경우는 3명 (서울 1명)
- 연간 평균 구속기간은 1년 6개월(연간 평균 구속기간)
- 구속장 : 서울 및 서울을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 사건별 분류

- 국가보안법 위반 주요 사건(국가보안법 7조 3항 이적단체 조항)
 - 국회차라주의적 사건 20명 (부산 1명, 서울 19명)
 - 안정인수회로 구성된 반인민투쟁 1명 (서울 1명)
 - 전북민중청년단체(전북민중청년회) 사건 3명 (서울 2명, 부산 1명)
 - 항공대 학생단체 사건 4명 (서울 3명, 부산 1명)
 - 부산부성지역 이적계 합입계 사건 16명 (부산 16명)
- 6기 한총연(98년도) 관련 구속사
 - 한총연 유령식 20명 (서울 19명, 부산 1명)
 - 6기 한총연 대의관(한총연 대표) 이적단체 구성(1년 6개월)
- 지역 관련 구속사(집시법 위반 등)
 - 5월 1일 노동절 시위 29명(학생 1명 / 노동자 28명) (서울 12명, 부산 17명)
 - 6·10 일반족대회 30명 (서울 30명)
- 기타 구속사(과민전진)
 - 부산지사관 폭력 14명 (부산 14명)
 - 해운대 4명 (부산 4명)
 - 서고동 5명 (부산 5명)
 - 신대저공 40명(1년 7일) (부산 40명)
 - 해운대 1명 (부산 1명)
 - 해운대 1명 (부산 1명)

인권하루소식

합본 10호 (제1036호 - 제1156호)

제1037호(98. 7. 2 주) / 27

제1038호(98. 7. 9 주) / 28

제1039호(98. 7. 16 주) / 31

1998. 8.

인권운동사랑방

스소투등등

호이 북합

(호021111 - 호000111)

.8.8001

행등스공을등

차례

부 록 <인권하루소식> 합본 10호 색인

/ 309

제1036호(98. 1. 6 화) / 25

- 1면 ·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구 사노맹 관련자 4명, 통신물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
- 2면 · 일본역류 후포꾸 노동자 귀국
· 제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레드헌트> 상영
· 진관스님 상고심, 원심대로 3년6월 확정
· 주간인권호름(97년 12월 22일- 98년 1월 4일)

제1037호(98. 1. 7 수) / 27

- 1면 · “전자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인사, 김대중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부민노청 구속자, 인천구치소 가혹행위 주장
- 2면 · 인권선언 제정 50주년, 전세계 기념행사 줄이어
· 도원동 철거폭력사건, 적준개발 또 고소 당해

제1038호(98. 1. 8 목) / 29

- 1면 · “재벌, 별장부터 내놔라” 경제위기 고통, 노동자 일방 부담
· <만화사랑방> 고통분담
- 2면 · 참여연대, 사회보장개혁위 구성 제안, 김 당선자 사회보장정책 후퇴 비판
· 나우누리 ‘강용주 인권방’, 최연소 장기수 석방운동 전개
· 박지동 교수 1차공판 예정

제1039호(98. 1. 9 금) / 31

- 1면 · IMF시대 외국인노동자 시련, 체불임금 못받고 해고때도 영순위
- 2면 · KNCC인권위, 재소자 겨울나기 후원 - 서울지역 1백명 재소자에 온정
· 대전성모병원 노조, 명동성당 농성 돌입 - 노동법총파업 이유 해고 항의
· 서준식 사건, 국제 관심 지속 - 독일정부 “재판참관 고려중”

제1040호(98. 1. 10 토) / 33

- 1면 · 70세 장기수 암투병중 - 대전교도소 신인영 씨
· 푸른영상 김동원 감독 연행, <레드헌트>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
- 2면 ·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포기 안해” - ‘근거법을 제정, 예산 집행’ 이유
· 참여연대 연희동 시위, “전·노 재산 몰수” 주장

- 박지동 교수 공판 연기
- <새책 소개> 「철아, 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개마서원)

제1041호(98. 1. 13 화) / 35

- 1면 · 김동원 감독 영장실질심사 거쳐 석방
· 재벌체제 개혁 없는 정리해고 반대 - 민주노총, 정리해고 철회 않을 때 강력 투쟁키로
- 2면 ·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위원회, 제주 4·3 진상규명 탄압 중지 요구
· 주간인권호름(1월 5일 - 11일)
- 3면 · <인권시평> 분노와 사랑의 슬픔(차병직 변호사)

제1042호(98. 1. 14 수) / 38

- 1면 · 서준식 씨 변호인단, 기부금품모집규제법·국가보안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 서준식 대표 재판 연기
· 5·18 영화제작 후원회원 모집
- 2면 · 고려대 학생회, "학원사찰 여전" 주장
· <취재수첩> '인권'없는 개혁논의(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
· 서준식 홈페이지 개설

제1043호(98. 1. 15 목) / 40

- 1면 · 유력(有力) 석방, 무력(無力) 구속, 홍인길 씨 풀어주고 암투병 장기수는 가둬두고
· 김대중 당선자, "취임후 사면·복권 실시"
· <만화사랑방> 불평등 행형 - 풀려나는 권력자, 갇힌 일반수
- 2면 ·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피해 통계발표 -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 줄어
· 시민사회계, "정리해고 강행 반대·IMF재협상·재벌개혁 촉구"
· 김진균 교수, 안기부 상대 '명예훼손' 소송
· 철거폭력 편파수사 시비 재연 - 용산구 중립동 재개발지구

제1044호(98. 1. 16 금) / 42

- 1면 ·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 대통령 공약사항...설치여부는 불확실
· <현장스케치> 민가협 목요일집회 - 암투병 장기수 어머니의 눈물겨운 편지
- 2면 ·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① 보편적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곽노현 방송대 교수)

제1045호(98. 1. 17 토) / 44

- 1면 · 국보법 폐지운동 재검토,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샵」
· 전세계에 공개되는 이적표현물 - <레드헌트>, 베를린영화제 공식 초청
· 늦봄 문익환 목사 4주기 추도식
- 2면 ·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㉓ 박용용(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제1046호(98. 1. 20 화) / 46

- 1면 · 한총련 수배자 주변인도 고통 - 친인척 물론, 어머니 동창생까지 시달려
· 민교협·민변 등 11개 단체, 재벌개혁 공대위 구성키로
· 인권유린 고발 기자, 법정에 - 한국타이어 보도관련 명예훼손 혐의
- 2면 · 전교조 문제 국제사회에 호소 - 이동진 전교조 부위원장, 호주 교원노조대회 참가
· 주간인권호름(1월 12일 - 1월 18일)
- 3면 · <특별기고> 당면경제위기의 의미와 대안(김상조 한성대 교수)

제1047호(98. 1. 21 수) / 49

- 1면 · IMF시대 인권, 총체적 위기 -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 워크샵
· 미결수 처우, 현재 심판 회부 - 서준식 씨 헌법소원 받아들여
· 유럽의회, 한국 사형집행 규탄
- 2면 ·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곽노현 방송대 교수)

제1048호(98. 1. 22 목) / 51

- 1면 · 주한미군, 국민 허리 조른다 - 올 한해 방위비분담금 4억달러 달해
·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함세환 씨, 집행유예 선고
· 박지동 교수 병보석
· <만화사랑방> 양심수와 수배자
- 2면 · <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제1049호(98. 1. 23 금) / 53

- 1면 ·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 씨 변호인 위헌제청 신청
· 범민련 민경우 씨 등,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코언 미국방 발언 강력 비난
- 2면 · 의료구조 전환 시급 -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방양균 씨, 징역 1년 6월 구형
· <이달의 인권영화> 메카시 선풍 - 「비공개」 「프론트」

제1050호(98. 1. 24 토) / 55

- 1면 ·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 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
· 여성단체연합 총회, 성차별적 여성해고 규탄
· 노벨평화상 조디 윌리엄스 방한, 대인지뢰금지 여론형성 계기될 듯
· 정의평화정보센터, 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규탄
- 2면 ·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새해 첫 시국기도회, "양심수 석방" 촉구
· 국제법률가협회·국제펜클럽, 서준식 씨 석방 촉구

제1051호(98. 1. 27 화)

/ 57

- 1면 · 택시노조 위원장 분신 증태, 노조탄압·완전월급제 파기에 항의
- 출소한 양심수, 대다수 미복권 - 전국연합 집계, 미복권자 1천6백여 명
- 2면 ·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정세토론회 가져
- 주간인권호름(1월 19일 - 1월 25일)

제1052호(98. 1. 31 토)

/ 59

- 1면 · 서준식 씨 1차 공판 - “양심의 자유 포기하는 순간, 나는 살아 있는게 아니다”
- 서준식 피고인, 검찰 석명 요구사항
- 2면 · <주요내용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 3·4면 · 98년 1월분 총목차(1036-1052호)

제1053호(98. 2. 3 화)

/ 65

- 1면 · 인권협 대표단, 김대중 당선자 면담에서 “인권을 국정지표로 할 것”등 요청
- COBP, 3월 둘째주 경찰폭력 반대 캠페인 제안
- 2면 · 에바다 사태 4백32일 경과, 재단측 버티기·평택시 유착 시비
- 주간인권호름(1월 27일 - 2월 1일)
- 3면 · <인권시평> 긴 호흡의 인권운동(장호순 순천향대 교수)

제1054호(98. 2. 4 수)

/ 68

- 1면 · 대인지뢰금지 캠페인 돌입, 조디월리엄스 방한
- <표> 92-97년 지뢰로 인한 사상자 현황
- 2면 · 조디월리엄스·스티븐 구스 발언요지 - “대인지뢰금지,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 영광주민 60일째 침묵시위, 원전 5·6호기 건설문제 마찰
- 세계교문방지지구, 진관스님 석방 촉구
- ‘자본’대 ‘반자본’, 스위스에서 각각 국제행사

제1055호(98. 2. 5 목)

/ 70

- 1면 · 25년전 지뢰사고, 조만선 씨의 비극
- <만화사랑방> 대인지뢰
- 2면 · 민주노총 지도부 국회의원의 농성 돌입 - 사회단체, 정리해고 반대 한 목소리
- 팔레스타인 구속자, 감옥서 허룻만에 사망

제1056호(98. 2. 6 금)

/ 72

- 1면 · <기획연재>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① 한총련 구속자 3백여명 달해
-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석방, 서부지원 형사1단독 금보석 결정
- 2면 · <인터뷰>조계국 목사(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 조디 월리엄스 방한이 남긴 것
- 구태 못 벗은 안기부, 김형찬 씨 인권피해 증언 저지 기도

제1057호(98. 2. 7 토)

/ 74

- 1면 · 엠네스티, 장기수 신인영씨 석방 촉구·한국 교도소 의료실태 개선도 요청
- 감사원, 에바다 비리 특감 - 평택시·재단간 유착의혹 초점
- 엠네스티, “한국엔 양심수 더 있다”
- 민가협·전국연합, 양심수 전원석방 캠페인 돌입
- 2면 · <기획연재>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②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 <새로나온 책> 『대인지뢰금지, 현실과 과제』(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엮음)

제1058호(98. 2. 10 화)

/ 76

- 1면 · 법원 판결 무색, 불법검문 여전
- 김종구 법무 장관, “양심수 기준 정한 것 없다”
- 2면 · 전교조, 합법화 따른 대국민담화 발표
- 철도해고노동자, 국회의원회 당사 농성
- 택시노조, 권오영 씨 분신 관련 집회
- 주간인권호름(2월 2일 - 2월 8일)

제1059호(98. 2. 11 수)

/ 78

- 1면 · ‘유서대필’ 감정 김형영씨, 사기 혐의로 또 구속
- 전주 사회단체, 재소자 인권침해 항의하며 전주교도소 농성
- 대구지역 인권·사회단체, “선별 사면 수용 못한다”
- 2면 · <기획연재>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③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일본 전국회의,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양심수 석방 탄원

제1060호(98. 2. 12 목)

/ 80

- 1면 · 전주교도소, 비전향장기수 면회약속 파기
- 조성봉 <레드헌트> 감독 체포, 베를린영화제 참가 불투명
- <만화사랑방> 유서대필사건과 사기꾼 감정사
- 2면 · ‘유서대필 사건’ 언론도 재수사·재심 요구

제1061호(98. 2. 13 금)

/ 82

- 1면 · 영등포구치소장, 재소자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 당해
- 조성봉 감독 체포 관련, 베를린영화제 참석자들 항의 움직임
- 전주교도소, 목사·신부 등 폭행
- 현병대 가혹수사, 2천만원 배상 판결
- 2면 · 노동계·학계 진보인사들, “노사정 재협상 해야 한다”
- 민변,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
- 우토로후원회 일본대사관 앞 항의시위
- 전농동 철거민 대거 연행
- 3면 · <특집>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곽노현 교수)

제1062호(98. 2. 14 토)

/ 85

- 1면 · 경찰·건설회사 손발 척척, 전농동 철거민 무더기 연행 후 숙소강제 철거
- 조성봉 감독 구속영장 기각
- 대우조선 노동자 최대림 씨, 정리해고 항의 분신사망
- 2면 · <요약>인권관련 개혁제안서(민변 제출) -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제1063호(98. 2. 17 화)

/ 87

- 1면 · 잘난 '법·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왔을 판
- "노사정 합의, 정치권이 깎다", 민변 등 노동법통과 규탄
- 전국연합 "양심수 석방·안기부 해체" 주장
- 2면 · 전주교도소장 공식 사과, 장기수 면회 제약속
- 주간인권호름(2월9일 - 2월 15일)

제1064호(98. 2. 18 수)

/ 89

- 1면 · "동아대 간첩단, 물증없이 선고" - 간첩혐의 3년6월 선고, 가혹행위 언급 없어
- 민변·참여연대, 법조비리 철저수사 촉구
- 서준식 씨, 씨네21상 수상
- 2면 ·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㉑ 해아래집 식구들(에바다농아원 농성단)

제1065호(98. 2. 19 목)

/ 91

- 1면 · 3백회 수요집회, 일 정부 태도 여전
- <만화사랑방> 노사정 합의 깎 정치권
- 2면 · 목숨까지 앓아간 노점단속, 강남역 봉어빵 노점상 급사
- 참여연대, "비리 법조인 즉각 소환" 촉구
- 판악노동청년회 회원,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

제1066호(98. 2. 20 금)

/ 93

- 1면 · 선별석방 반대·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거리서명 1만명
-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으로 벌금형 선고
- 판악노동청년회, 이적단체 혐의 수사
- 2면 · <특집>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차별금지 영역에서 눈부신 성과(곽노현)

제1067호(98. 2. 21 토)

/ 95

- 1면 · 교육부, 각 대학 신입생에 '한총련 비난' 유인물 배포 발생
- <한권의 책> 『97 정보통신검열백서』(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위임)
- 안기부 해체·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집회
- 2면 · 98빈민대회, 노점상·철거민 생존권투쟁 결의 다져
- <요약>교육부가 대학신입생에게 보내는 글, 서울대 총학생회 반박 성명서

제1068호(98. 2. 24 화)

/ 97

- 1면 · 방한중인 엠네스티 대표단, 양심수 가족 만나
- 국제엠네스티 방한, 양심수 석방촉구 활동
- 각계 지식인 123명 선언,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 촉구
- 2면 · 성희롱 승소판결이 남긴 과제, 성희롱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
- 주간인권호름(2월 16일 - 2월 22일)

제1069호(98. 2. 25 수)

/ 99

- 1면 · 엠네스티,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요청
-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한총련 전원석방 촉구
- 민주노총 최명아 부장 운명
- 2면 · <기획연재>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④ 사상전향 강요는 반인권
- <한권의 책> 『외로운 저항』(지은이:천주교 제주교구 젊은사제 모임/출판사:빛두레)

제1070호(98. 2. 26 목)

/ 101

- 1면 · 인권활동가들, 새 정부 인권개혁 전망- "경제·사회적 권리 후퇴 예상"
- <만화사랑방> 양심수
- 2면 · <기획연재>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⑤(끝) '창살없는 감옥생활' 수배·미복권자

제1071호(98. 2. 27 금)

/ 103

- 1면 · 불법체류 단속, 외국인노동자·기업주 모두 고통 - 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 <현장스케치> 민가협 목요일집회, "아빠, 보고싶어요"
- 2면 · 성동구치소 노역자 폭행당해 숨져...검찰, 사인규명 착수
- <이달의 인권영화> 스위트 컨트리
- 청년정보문화센터, 나진·선봉지구 탁아소에 송금

제1072호(98. 2. 28 토)

/ 105

- 1면 · 유엔,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난항
- 영광군민, 핵폐기물 저장고 건설 반대
- 2·3면 · 98년 2월분 총목차(1053호-1072호)

제1073호(98. 3. 3 화)

/ 111

- 1면 · 전주지법,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조작 결론, 이적단체 구성 혐의 무죄 선고
-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
- 2면 ·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 가상법정 친일파 예술인 단죄
- 제주 4.3 항쟁 명예회복 선포, 3월 28일-4월 5일 기념주간
- 주간인권호름(2월 23일 - 3월 1일)

제1074호(98. 3. 4 수) / 113

- 1면 · 황폐화된 교정, 버려진 아이들 - 경기여성, 1년 지나도록 비정상 운영
- 우조교 사건 공동변호인단, 여성운동상 수상 - 이문열 씨 등 여성인권 결집들 선정
- 2면 ·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곽노현 방송대 교수)

제1075호(98. 3. 5 목) / 115

- 1면 · 대학서도 인권교육, 강좌 늘어 - 성공회대·서강대·대구대, 이론편 작업 시급
- 97년 인권사회학 강의내용(대구대)
- <만화사랑방> 경기여성
- 2면 · 북한 식량지원 국제연대, 세계 70개 도시서 4월 25일 '국제급식의 날'
- 국회의원 16명, 인권포럼 구성 - 인권문제 연구, 입법 과정 반영

제1076호(98. 3. 6 금) / 117

- 1면 · 미군, 거저먹는 땅장사 - 군산미군기지, 비행장 사용료 되레 인상
- <현장 스케치> 민가협 목요집회 - 유엔인권위 선정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 8인
- 2면 · 한상권 교수 출근투쟁 전개, 이사진 교체 불구 덕성여대 사태 미해결
- 노동부 산업안전과 폐지, 산재예방책 실종위기
- "당신과 함께 따뜻한 봄을 맞고 싶습니다" - 박래군(구국전위 사건) 씨 아내의 편지

제1077호(98. 3. 7 토) / 119

- 1면 ·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 등 20여종 반입 불허
- 인천구치소 서신검열 내부규정
- 참여연대, 검찰 발표 비난 "의정부 지청 재수사" 촉구
- 2면 · 여성운동, '고용·폭력·정치참여' 주축 - 90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
- 붓물터진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전국적 기승
- <한 권의 책> 프라이버시와 인권

제1078호(98. 3. 10 화) / 121

- 1면 ·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 -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갑
- '정의평화상', 라파엘 크리닉 -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 펼쳐
- 2면 · 재소자 김 씨가 밝힌 징벌과정 - 교도소장파 눈 마주친 죄
-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고용유지·사회적 평등 촉구
- 주간인권호름(3월 2일 - 8일)
- 3면 ·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오창익(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제1079호(98. 3. 11 수) / 124

- 1면 · 북 주민 3백만명 사망 추정 - 불교운동본부, 식량난민 4백여명 넉달간 면접조사

- 14개 단체, '청년회의 준비위' 결성 - 진보정당 건설 목표
- 2면 ·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제1080호(98. 3. 12 목) / 126

- 1면 · 전직 청송보호감호소장 피소 - 가혹행위 은폐 의혹, 문서위조 혐의
- 김형찬 대책위 기자회견, 안기부 인권유린도 규명해야
- <만화사랑방> 전주교도소
- 2면 · 군산지역 사제단, 해방 후 미군기지 내 최초 시위, 군산비행장 사용료 징수 항의
- 장애인 월간지 『함께 걸음』 10주년, 따듯한 정책·훈훈한 미담의 10년

제1081호(98. 3. 13 금) / 128

- 1면 · "안기부 가족 눈앞에서 고문" - 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개혁 촉구
- 오늘 특별사면 예정, 11시 법무부 공식 발표
- 교도소 인권실태 설문조사 -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 2면 · 정리해고 칼날 앞...생존전략은 투쟁뿐 - 대우정보시스템 밀어부치기식 해고
- 김우중 회장 추대식장, "전경련 해체" 시위
- <기자수첩> 시장님은 '줄대기'중 - '인권' 두고 거래하는 김선기 평택시장

호외(98. 3. 13 금) / 130

- 1-3면 · 속보 - 3.13 특별사면 명단

제1082호(98. 3. 14 토) / 133

- 1면 ·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사면복권> 세계최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 주요 미석방 양심수
- 2면 · "각오하고 있었으니 염려 마십시오" - 사면 제외된 세계최장기수 우용각 씨
- 엠네스티, 전국회의 성명, 장기수 선별석방 '실망'
- 36년만의 출소, 최하중 씨 - "기쁜 게 부끄럽습니다" 첫 소감
- 출소자 1천명에 설문지 배포

제1083호(98. 3. 17 화) / 135

- 1면 · "전두환·노태우는 나왔는데...", 5·6공 양심수 47명중 단 3명 석방
- 인천구치소, 약속 뒤집어 - 재소자 도서반입 불허
- 2면 · 노건연 산업보건·안전분야 토론회, 산재추방운동 10주년 평가
- 54차 유엔인권위 개막
- 주간인권호름(3월 9일 - 15일)

제1084호(98. 3. 18 수) / 137

- 1면 · 54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6주간 제네바서 - "향후 50년 새로운 인권을 설계할 때"

-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연설요지>
- 범민련 이천재 부의장, 징역 2년6월 선고
- 2면 · <특별기고> 감옥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홍근수 목사, 향린교회)
- <한 권의 책>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제1085호(98. 3. 19 목) / 139

- 1면 · 낙성대의 새 식구들 - 출소 장기수, 또 하나의 시작
- <만화사랑방> 기만적인 3·13 사면조치
- 2면 ·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온존 -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유지
- 조규향 사회복지수석 망언,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복지법 초래"

제1086호(98. 3. 20 금) / 141

- 1면 · 해고·임금체불·노조탄압 극성 -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
- "이사람들이었다" - <내일신문>, '고스톱 의원' 9명 공개
- '체제전복세력' 발언 규탄 - 민가협, 빗속 목요집회
- 2면 ·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 '새벽 아침에' - 구속중인 윤순재(관노청 회장) 씨의 시

제1087호(98. 3. 21 토) / 143

- 1면 ·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 보복조치 이송도 정당? - 전주지법, 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기각
- 2면 · 시민연합준비위, 정형근·정재문 의원 수사 촉구 - '북풍공작 진상규명' 서한전달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등, 미군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규탄
- "노동자 뉘를 달래자" - 금속산업연맹, 진혼굿 펼쳐
- <국제인권소식> 남아공, '교도소 포화' 항의 파업 - 미국, 아동학대로 하루 3명꼴 사망

제1088호(98. 3. 24 화) / 145

- 1면 · 서울대생 불법검문 거부운동 전개, 현장에서 항의...집단소송 제기키로
- 재소자 알권리 침해 - 인천구치소, 행형법 관련 서신불허
- 2면 · '연수취업제' 도입 강력 반발 - 외국인노동자 단체 규탄시위·성명
- 주간인권호름(3월 16일 - 22일)
- 3면 · <인권시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의 출발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제1089호(98. 3. 25 수) / 148

- 1면 · 유엔인권위, 빈곤·분배등 사회적 강조,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등 논의
- 아시아인권위, 이장희교수 출금해제 요청, 공동행동 촉구
- 2면 · 4·3 50주년 진상규명, 피해자 배상 요구, 서울·제주등 각지 행사 예정
- 민주노총·국제연대행동 네트워크, 노동조건 후퇴 압력 미 규탄
- <한 권의 책> 4·3은 말한다(5)

제1090호(98. 3. 26 목) / 150

- 1면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키로
- 부민노청, 3년·5년 구형
- <만화사랑방> 불심검문
- 2면 · 김형찬대책위, 안기부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 - 내곡동 안기부청사 앞 집회
- 대학언론 탄압 극성 - 편집권 침해·기자 해임 잇따라

제1091호(98. 3. 27 금) / 152

- 1면 · '사이버 인권선언' 채택 움직임 - 통신연대 검열, 사이버팁으로 개편
- 국제연대행동 네트워크, 미 상공회의소 규탄시위
- <기자수첩> 대학판료들의 반인권적 발상, '정보통제' 위해 팩스·인터넷 사용 불허
- 2면 ·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⑩ 손민영씨 - 감옥에도 인간이 살 수 있어야 한다

제1092호(98. 3. 28 토) / 154

- 1면 · 다시 머리띠를 묶는다 - 벼랑에 몰린 노동자들, 총력투쟁 결의
- 지난해 노동법 파업 유죄선고, 사법부도 노동자탄압
- 2면 · 불심검문 항의에 또 폭력대응 - 서울대생, 관악경찰서장 등 고발키로
- '북풍' 안기부 개혁으로, 4월 2일 안기부 개혁 토론회
- <발췌>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기초 제안서)

호외(98. 3. 30 월) / 156

- 1면 · 도원동 철거민 위급

제1093호(98. 3. 31 화) / 157

- 1면 · 도원동 철거폭력, 주민 중태 - 인명 무시...알고보니 또 적준!
- 2면 · 민주노총, 명동성당 농성 돌입 - 고용안정·부당노동행위철폐 촉구
- "근로자파견대상 최소화" 촉구,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주간인권호름(3월 23일 - 29일)

제1094호(98. 4. 1 수) / 161

- 1면 · 도원동 철거폭행, 적준응역 확실 - 철거민 고사작전, 음식물 반입 차단
- 도원동 사건 현장 그림
- 2·3면 · 98년 3월분 총목차(1073-1093호)

제1095호(98. 4. 2 목) / 164

- 1면 · 4·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발표명령자·미국책임 등 규명 안돼
- 4·3 50주년 행사 안내
- <만화사랑방> 생존권 외면하는 정부

2면 ·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4·3은 반공주의의 폭력과 공포였다"

제1096호(98. 4. 3 금) / 166

1면 · 도원동 폭행 피해자 이범희씨 증언, "나를 폭행한 건 용역강패들"
· 외국인노동자 위한 목요기도회
2면 · 안기부 개혁 방향 토론회, "국회 통제강화, 직권남용 방지" 절실
· 대만인권촉진회, 서준식 씨에 성금
· <한 편의 논문> 「언론의 제주 4·3 보도에 관한 연구」(김광우)

제1097호(98. 4. 4 토) / 168

1면 · 머리 길다고 라이터블로 지저, 서울 모공고 '교사폭력' 물의
· 인권운동사랑방,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 예정
· "강제철거 중단" 촉구, 아시아주거권연합 등 공동성명
2면 · "신자유주의 반대, 지구적 민중행동" 촉구 -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PGA 보고대회 가저
· 레드헌트 탄압 재연, 각 대학 4·3 기념 레드헌트 상영
· <발췌> 지구적민중행동(PGA)선언문

제1098호(98. 4. 7 화) / 170

1면 · 말썽마다 조직폭력배 등장 - 매일노동뉴스 기자, 취재도중 폭행 당해
· (주)원실업도 폭력 시비
· <기자수첩> '라이터 교사'의 항변, "머리가 길면 탈선합니다"
2면 · "왜 이제서 우리를 위로하는가"- 4·3희생자 진혼곳에 다녀와
· 주간인권호름(3월 30일 - 4월 5일)

제1099호(98. 4. 8 수) / 172

1면 · 이철용 씨 사건 가해자 드러나, 시위진압 전경 "방패로 폭행" 시인
· (주)한화 정준희 씨 자살사건 파문, '폐수방류' 지시에 번민하다 자살
· "현행 불심검문은 위법", 불심검문 워크샵 열려
2면 · 유엔인권위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평화적 저항의 권리" 명문화
· <요약> '인권운동가 선언' 초안

제1100호(98. 4. 9 목) / 174

1면 · 정부대표단, 국내 인권문제 축소 - 유엔인권위서 "국내 민간단체 주장 신빙성 없다"고 주장
· <만화사랑방> 묻히는 안기부개혁
2면 ·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 민주노총, 현재 앞 시위
· 6기 한총련 탄압 인정 못해, 연세대총학생회 · 전국학생연대 주장
· 한국타이어 고발 기자에 유죄선고,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백만원

제1101호(98. 4. 10 금) / 176

1면 · "한총련 평화집회 보장하라", 사회단체 · 한총련 비주류대학 성명 잇따라
· 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고문사례 폭로 · 정형근 의원 규탄
2면 · 고문...자포자기...허위자백,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양홍관 씨 폭로
· 임금체불 · 산재문제 등 외국인노동자 발목 잡아, 외국인노동자 피해 접수센터 개설

제1102호(98. 4. 11 토) / 178

1면 ·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 · 개인제소 가능
· "평화적 행사 치르겠다" - 한총련, 대의원대회 일단 유보
2면 · <요약>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부정책 비판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제1103호(98. 4. 14 화) / 180

1면 · '평화' 깃발는 '국민의 경찰', 한총련 대의원대회 폭력 난무
· <광고>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거리캠페인
2면 · '김낙중 석방 대책위' 창립 - 각계인사 참여, "민족대화합" 촉구
· 에바디눔아원생, 자민련 앞 시위 - 김선기 평택시장 공천 항의
· 주간인권호름(4월 6일 - 4월 12일)
3면 · <인권시평> 국제민중연대의 준비를 위하여(박천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대표)

제1104호(98. 4. 15 수) / 183

1면 · '개발지구 생활권 · 주거권 최악' - 도원동 비상대책위, '순환식 재개발' 촉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의시설 고발전화 개설
· <한 편의 책> 『환영받지 못한 손님』(허창수 엮음)
2면 · '아시아인권현장' 5월 광주서 선포 - "빈곤과 억압으로부터의 인권보장" 선언
· "타살 다름없는 죽음" - 환경련, 정준희 사건 조사 발표

제1105호(98. 4. 16 목) / 185

1면 · "2월말 실업자 규모 3백48만명" - 국민승리21, 전국실업자동맹 조직화 착수
· 부민노청, '이적단체 혐의' 유죄
· <만화사랑방> 실업
2면 ·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 시작돼 - 인권운동사랑방, 불심검문 피해접수
· 전국연합, "IMF 재협상, 재벌개혁" 촉구집회

제1106호(98. 4. 17 금) / 187

1면 · '불법 불심검문'에 법적대응 - 서울대 총학생회, 관악경찰서장 형사고발
·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 여연, '위안부 개인배상' 촉구
· 4·3 추모행사 마무리, "진실규명, 이제 출발"
2면 · "안기부 고문수사관 승승장구", 김삼석 · 강용주 · 김진성 씨 고문사례 발표

- 기존여성노동자 고용심각, 고용불안·취업상담 급증
- 민주노총·전교조 등, 공무원 임용취소 철회 요구

제1107호(98. 4. 18 토) / 189

- 1면 ·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 '소의계층 교통전자' 비판 - 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 2면 · "우리도 한국사람입니다" - 국회인권포럼, '해외입양인 인권' 토론
- 불심검문 2차 캠페인 전개
- 서준식 씨 4월혁명상 수상

제1108호(98. 4. 21 화) / 191

- 1면 ·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
- 컴퓨터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에 이적표현물 적용
- 2면 · "동티모르 인권 지지"호소 - 노벨상 수상자 호르타 씨, 김 대통령에 서한
- 참여연대, '고스톱 의원' 13명 검찰 고발
- 주간인권호름(4월 13일 - 4월 19일)
- 3면 · <인권시평> 아프리카 추장이 온다고 해도(오창익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제1109호(98. 4. 22 수) / 194

- 1면 · '위안부 일본 배상' 물 건너 가나 - 한국정부, '배상 요구' 사실상 포기
- <새로나온 책> 『편의시설 다시보기』(김정열 등 지음)
- 2면 ·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 소년수, "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 서울대 성폭력추방운동 확산, 학생회별 회칙 제정 활발
- 하나들 들어가는 양심수 - 새 정부, 국보법 구속 여건

제1110호(98. 4. 23 목) / 196

- 1면 · 3개월 개발고문, 15년 폐쇄독거 - 대도 조세형, 청송교도소 만행 폭로
- <해설> 청송교도소 불법 인권유린
- <만화사랑방> 일본군 위안부
- 2면 · 불법 검문 불복중운동 대학가 확산조짐, 24일부터 통신공간에서 선언운동 전개
-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총파업 실질적 조직화

제1111호(98. 4. 24 금) / 198

- 1면 · 물대포 5시간 난사·고공침투 - 도원동 강제철거 완료, 농성자 전원 연행
- "구미유학생사건 고문조작" - 목요집회, 양동화 씨 사례 폭로
- 2면 · "노동은 국민의 권리" - 국민승리21, 1차 실업자대회 가져
- "허위자백 외 물증 없자 기자회견 시켜", '구미유학생 사건' 양동화 씨 증언

제1112호(98. 4. 25 토) / 200

- 1면 · 대답없는 메아리 "의문사 진상규명" - 유가협 등, 대국민캠페인 돌입
- 도원동 끌리앗 농성자들 계속 구금, 항의시위자들도 연행
- 2면 · 말뿐인 경찰의 '친질검문', 신고된 집회에서 불법검문
- 3월 현재 양심수 3백62명, 민가협 13차 정기총회 가져
- "석탄특사, 양심수 포함하라" - 전국연합, 법무부장관에 공개서한
- 사회적 통합 위한 교육 절실, 독일 시각장애인학교장 특강

제1113호(98. 4. 28 화) / 202

- 1면 · '교통'의 성역, 배불리는 자본 - 한국타이어, 순이익 줄어도 주식배당액 늘어
- 2면 · 김대중 정부, 본색 드러내 - 국민대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
- 주간인권호름(4월 21일 - 4월 26일)

제1114호(98. 4. 29 수) / 204

- 1면 ·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새로나온 책>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노라 칼린 지음)
- 2면 · 경찰, 곳곳에서 대학생 마구잡이 연행 - 노동절 앞두고 노학연대 차단 목적인 듯
- 명동성당 경찰 모습 사라져, 불심검문 캠페인 영향
- 연세대 불심검문 캠페인 한창, 27일 동아리연합회 설명회

제1115호(98. 4. 30 목) / 206

- 1면 · 'NO! MAI' 항의행동, '자본 세계화' 맞선 '인권·환경' 사수
- 2·3면 · 98년 4월분 총목차(1094호-1115호)

제1116호(98. 5. 1 금) / 211

- 1면 · 불법검문 불복중운동 확산,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선언 발표
- 대동출판사 사장 국보법 연행, 항일무장투쟁사 등 이적표현물 혐의
- <만화사랑방> 의문사·열사 진상규명
- 2면 · 4·30 청년학생투쟁대회 열려 - 위기의 대학, 민중연대로 돌파구
- 법무부 "석탄특사 계획없어" - 청년단체들, 양심수 석방 촉구
- 범민련 민경우 씨 항소 기각
- 3면 ·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 이창근(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대표)

제1117호(98. 5. 2 토) / 214

- 1면 · 분노의 폭발, 제108주년 세계노동절
- 범민련 김영제 씨 연행, 안기부 이송 예정
- 2면 · <노동절 특집-실업자운동> 빈곤계층과 연대를 통한 저항운동
- 미국내, 한국노동시장 유연성 논란

제1118호(98. 5. 5 화) / 216

- 1면 · 실명위험 외면 수사강행 - 경찰, 폭력적 연행 및 수사관행 여전
· 이철용 씨, 전 성동경찰서장 등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
- 2면 · 사상·표현의 자유 촉구, 통신인들 “국보법 철폐” 주장
· 범민련 김영제 씨 무혐의 석방, 안기부 이례적 조치
· 주간인권호름(4월 27일 - 5월 3일)
- 3면 · <인권시평> 노동절에 생각하는 『백만 마리의 고양이』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제1119호(98. 5. 7 목) / 219

- 1면 · 비정규직 노동자 뭉친다, 정규직보다 열악한 노동조건
· <만화사랑방> 참담한 가정의 달
- 2면 · “외자유치, 만병통치 아니다”, 민주노총 2기 노사정위 불참
· KBS 개혁프로 불방 규탄, “시민단체 연대행동” 촉구

제1120호(98. 5. 8 금) / 221

- 1면 · 뒤로 가는 ‘국민의 정부’ - 시위진압 방침, 인권피해 되풀이 우려
· 사라진 ‘친질검문’, 대학가 불법검문 재개
· 국제사회주의자, 국보법 적용 무더기 연행
- 2면 ·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⑬ 문만식(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평화와 인권> 편집장)

제1121호(98. 5. 9 토) / 223

- 1면 · 누구는 통근, 누구는 밤샘 - 국제사회주의자 수사, 부당관행 되풀이
· ‘반딧불’로 부활하는 두밀분교, 마을주민 문화공간으로
- 2면 · 실적노숙자 인권보장 촉구, 국회인권포럼 2차 심포지엄
· 에바다투쟁, 5백28일 경과 - 대통령 입장표명 촉구
· <광고> ‘22일간의 고백’ 시사회

제1122호(98. 5. 12 화) / 225

- 1면 · 지옥같은 노동현장 - 한국타이어 노동자 “여기는 교도소”
- 2면 · <1면에서 계속> 한국타이어 - 유일한 휴식공간이 ‘화장실’
· 주간인권호름(5월 4일 - 5월 10일)

제1123호(98. 5. 13 수) / 227

- 1면 · 정치연대·전해투 유인물 등 불은 낙인
· 목비권 행사에 궤범죄, ‘관노청’ 중형 구형
· <자료> 검찰이 지목한 ‘불순유인물’
- 2면 · “동성애, 비정상인가” - 동성애자인권연합 등 토론회
· KNCC, 학생탄압 우려·자의적 구속 규탄

- 국제사회주의자 검거, 프락치 덕
- 사회복지학계 공동성명,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제1124호(98. 5. 14 목) / 229

- 1면 · ‘사랑의 메 어디까지’, 학생체벌지침 논란
· 공안당국, 노동자 추적 - 5·1절 시위자 사진 채증
· <만화사랑방> 변화없는 ‘국민의 정부’
- 2면 · 고통분담 명분, 산재급여 감축 - 노동계, “생명권 박탈” 반발

제1125호(98. 5. 15 금) / 231

- 1면 · ‘우연한 만남’ 트집 - 기획사 실장, 경찰에 시달려
· “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 국민승리 21 등, 실업대책 촉구 캠페인
- 2면 · “인권의 눈으로 본 광주” - 한국사회학회, 5·18 국제학술심포지움
· <요안 갈롱 기조연설 요약> “인권 보편적인 것인가 아닌가”
· ‘천리마’ 이적단체 아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제1126호(98. 5. 16 토) / 233

- 1면 · 아시아민중 인권외지 집약, 아시아인권현장 선언대회 개막
· <인권현장선언대회 토론 요약> 제1주제: 아시아 인권현실의 재확인
- 2면 · CCTV 감시 아래 근무,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해설> 김 대통령의 이중적 ‘전향관’ - “사상 자유 인정하나, ‘다짐’ 철차 있어야”
· 참여연대, 시민운동상 수상
- 3면 · <인터뷰> 아이아(인도 전 대법관), “가난과 살지 않고는 가난을 모릅니다”
· <선언대회 토론 요약> 제2주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제1127호(98. 5. 19 화) / 236

- 1면 · ‘급진적 평등’의 필요성 확인, 아시아인권현장 선언대회 17일 막 내려
- 2면 · 국내단체 인니대사관 앞 시위, 수하르트 하야·인권탄압 중단 촉구
· 주간인권호름(5월 11일 - 17일)
- 3면 ·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 박천웅(외노협 회장)

제1128호(98. 5. 20 수) / 239

- 1면 ·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 동성애 대학생 목매 자살, 가정에서 외면받고 최후 선택
- 2·3면 · <발췌> 아시아인권현장

제1129호(98. 5. 21 목) / 242

- 1면 ·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 유가족들 22일째 한맺힌 울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이번에는 꼭..."
- 시민 정보공개청구 운동 출범
- 2면 · 도원동 철거민 용산구청 앞 단식농성 - 경찰, 농성장 침탈 대책위원장 구속
- 독일민중제, 김 대통령에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서한

제1130호(98. 5. 22 금) / 244

- 1면 ·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인권위 기능엔 이견
- 2면 · 용기있는 학부모들의 승리, 학교운영위 바른 정착 이끌어
- 사상전향제 철폐 주장, 강용주 씨 20일간 옥중단식
- <만화사랑방> 실종된 5·18정신

제1131호(98. 5. 23 토) / 246

- 1면 ·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 안기부 약물수사 의혹제기, 진관스님 고문피해 폭로
- 2면 ·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학술회의
- '박해받은 작가상' 서준식 씨, 휴먼라이프워치 선정
- 반성없는 경찰, 불심검문 항의에 폭행 대응
- 멀지만 한 독립의 봄, 동티모르 인권보장 촉구

제1132호(98. 5. 26 화) / 248

- 1면 · 5·6공 군의문사 밝혀라, 유가족 "한점 의혹없이 진상규명해야"
- 대통령 특단 촉구, 민주노총 "5·27 총파업" 확인
- 참세상, 개인정보 유출 거부 - 경찰, 이용자 정보 요구
- 2면 · 한반도 평화·군축을 우리 손으로- 여성평화한마당, 방위비 삭감 요구
- 주간인권흐름(5월 18일 - 5월 24일)

제1133호(98. 5. 27 수) / 250

- 1면 · 재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강 해고자 서울역 노숙
- 범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 결단 촉구
- 2면 · "5·18 정신의 인권적 계승", 광주 국제인권센터 설립 논의
- <새로나온 책> 『배앗긴 목소리를 찾아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역)
- 도원동 사태 지속, 주민들 단식농성

제1134호(98. 5. 28 목) / 252

- 1면 · 세계일보 노조 단식돌입, 회사측 부당노동행위 시정없이 묵묵부답
- "불가피한 선택", 민주노총 총파업
- 국제엠네스티, 파업권 존중 촉구
- 2면 · <현장스캐치> 해 넘긴 복직투쟁, 한상권 교수 "복직보다 소중한 건 원칙"
-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선정 '참교육상' 수상

제1135호(98. 5. 29 금) / 254

- 1면 ·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
- "관노청, 이적단체" 판결, 2명 실형·6명 집행유예
- <만화사랑방> 노동자 일방 매도하는 언론
- 2면 ·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 인제대생 11명 무더기 연행
- "우리는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28일 종묘공원에서 만난 사람들
- 3면 · <이달의 인권영화> '22일간의 고백'
- 정당방위 구속자 석방운동, 7월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 못버리는 옛버릇, 불심검문 다시 활개

제1136호(98. 5. 30 토) / 257

- 1면 · 각계인사, "한총련 이적 매도 중단" 및 "집회와 시위 자유 보장" 촉구
- '3자개입금지' 부활, 검찰 "권영길 씨 형사처벌"키로
- 사회권운동 필요성 강조, 민변 창립기념 인권 심포지움
- 2·3면 · 98년 5월분 총목차(1116호-1136호)

제1137호(98. 6. 2 화) / 263

- 1면 · 경찰, 합법집회에 도발 - 5·30 집회, 불법검문·연행 무법천지
- 2면 · 국본, 공동변호인단 구성 - 파업탄압·불법검문 대응
- 유가족, "희망 보았다" - 6월부터 2차 캠페인 전개
- 주간인권흐름(5월 25일 - 5월 31일)
- 3면 · <인권시평> 아무튼 한총련은 안된다 - 오창익(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제1138호(98. 6. 3 수) / 266

- 1면 ·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12명 대공분실 연행
- 2면 · '유인물 배포' 이유 해고 - 한화 계열 (주)오트론, 부당노동행위 판처
- '한달 임금 34만원', 기아 노조원 27일 분신
- 3면 ·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서준식)

제1139호(98. 6. 4 목) / 269

- 1면 · 집회방해 용납 안한다 - 사회단체, 경찰청장 고발
- 도원동 백석호 씨 의식회복, 화상경위 실마리 찾을 듯
- 2면 ·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이대훈)

제1140호(98. 6. 6 토) / 271

- 1면 ·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공판 진행

- 2면 · <국제인권소식> 아프리카 - 외채에 늘린 생존권
· 이적표현물 혐의 무죄, '미래통신' 구속자 석방
· <현장스케치> 재미동포들의 명동, 모란공원 방문

제1141호(98. 6. 9 화) / 273

- 1면 · 길가던 대학생, 황당한 구금 - 불심검문 옹했더니 어느새 피의자로
2면 · 해산하는 대열, 등뒤에서 덮쳐 - 경기도경, 평화집회 대학생 폭행
· 한소리회 후원모집
· 주간인권호름(6월 1일 - 6월 7일)

제1142호(98. 6. 10 수) / 275

- 1면 · 버스 안에도 '감시의 눈', 일반버스 등 폐쇄회로TV 설치
2면 · 용산구청 앞의 어린이 노숙자, "구청 아저씨들 제일 무서워요"
· 여성실업대책본부 발족, '여성차별·소외' 시정 촉구
· 주거권·일자리 요구, 무주택자 중요공원 집회

제1143호(98. 6. 11 목) / 277

- 1면 ·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실업대책 사각지대
· 무단침입에 불법수색까지, 보안관찰대상자 김용규 씨등
2면 · 택시노동자 한광로 씨 분신, 회사측 직장폐쇄에 항의
· "제벌개혁 제일 미흡", 교수 1백여 명 설문조사
· 전면적 민주개혁 촉구, 6·10 11주년 기념대회
· 출소장기수 금재성 씨 입원, 말기 간암 등 시한부

제1144호(98. 6. 12 금) / 279

- 1면 ·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현상금 3백만원' - 민가협, 이근안 수배
2면 ·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입후 158명 구속
· 여성 해고자 복부 구타, 대전성모병원
· <만화사랑방> 버스 안의 CCTV

제1145호(98. 6. 13 토) / 281

- 1면 · 이내창 씨등 사인 밝혀라, 유가족들 안기부 항의방문
· '간첩 불고지' 혐의 무죄, 함운경 씨 항소심
2면 · 기혼여성 구직자 증가, 해고·남편 실직 등 이증고
· 안민청 석방 촉구, 국보법 적용 배경 의혹
· 노점상 4천명 집회
· <국제인권소식> 멕시코 - 정부군, 사빠띠스파 침공

제1146호(98. 6. 16 화) / 283

- 1면 · 과학, '인류의 적'일 수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합의회의' 예정
2면 · 오도가도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에 벌금 이증고
· 에바다농아원생 후원회원 모집
· 주간인권호름(6월 8일 - 6월 14일)
3면 · <인권시평> 월드킵,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제1147호(98. 6. 17 수) / 286

- 1면 · 전자주민카드 몰밀추진, 행정자치부 국회 로비 등 작업 활발
· 국립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 반발, 결핵환자들 명동성당 농성예정
2면 · 영양제 맞던 대학생 급사 - 인천 성모자에 병원 의료과실사 논란
· 에바다 사태 새 국면 - 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제출
· 동티모르 인권유린 여전, 수하르트 몰러나도 무력진압 계속돼

제1148호(98. 6. 18 목) / 288

- 1면 ·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 결핵환자, 명동성당 농성 돌입
· 행정자치부, "전자주민카드 추진 불가피"
· 서울대, 독립영화 상영 - 사전심의 불복작품 한자리에
2면 · (주)모나미 노동자 농성투쟁 - 유인물 배포로 해고
· 민노총 실직자 돕기 캠페인
· 한국성폭력상담소, 온라인 성폭력 상담소 개설

제1149호(98. 6. 19 금) / 290

- 1면 · 의료노동자 수난시대 - 병원마다 부당노동행위 극성
· <만화사랑방> 전자주민카드
2면 · 구사대 동원한 가톨릭 사업장 - 대전 성모병원, 노조간부 집단 구타
· 이철용 씨, 고소인 진술에서 "성동경찰서, 사건 은폐" 주장
· 김 대통령, 외국인노동자 벌금제 개선 지시
· 보안관찰법 위반죄, 벌금 20만원 선고

제1150호(98. 6. 20 토) / 292

- 1면 · 86차 ILO 연례총회, "아동노동 종식 추진"
· 유가족 고행 계속돼, 기무사 항의 방문
2면 · 결핵환자, 국가 관리해야- 국립결핵병원 민영화 방침, 복지 축소 우려
· <국제인권소식> 콩고민주공화국, 인권운동가 정치적 실종 - 영국, 최악의 오심

제1151호(98. 6. 23 화) / 294

- 1면 · 전재천 씨에게 새 삶을, <페스카마호>사건 구명운동 재개

- IMF희생자 위령제 - "사회적 타살 중단하라"
- 2면 · '비리폭로' 공무원 해임 - 「너는 그렇게…」 저자 이용호 씨
- 주간인권호름(6월15-6월21일)

제1152호(98. 6. 24 수) / 296

- 1면 · 경찰에 맞서지 말라? -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 브리핑 방해
- <현장스케치> 외국인노동자 시위 "벌금 낼 돈 없어요"
- 2면 · <인터뷰> 엠네스티 방한단, "김대중 정권에 실망" -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 <새로나온 책> 「언론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 (한겨레신문전국독자주주모임 지음)

제1153호(98. 6. 25 목) / 298

- 1면 ·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다원건설(구 적준), 불법용역 드러나 - 경찰청, 의법조치 약속
- 2면 · 국가인권위 토론회 - 엠네스티 관계자,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
- 노숙 농성 잇따라 - 비용바다, 질병 고통 호소
- 양심수 군면제 요청 - 양군모 "이중수감" 주장

제1154호(98. 6. 26 금) / 300

- 1면 · 누굴 위한 '외자유치'인가 - 일본인 인수기업, 노동기본권 탄압
- 진보민청 중앙간부 전원연행 - '양심고백운동' 본격화 앞둔 시점
- 2면 · <인터뷰> 염규홍(국내 최초 인권출판사 설립) "비교하지 않는 사회를 희망한다"
- <'97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요약> 북한 "심각한 식량부족, 자유권조약 탈퇴 선언"
- 3면 · <'97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요약>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제1155호(98. 6. 27 토) / 303

- 1면 · "재범 판단 근거 없다" -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 <국제인권소식> 영국 -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 2면 ·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유가족 12명 경찰 연행
- <만화사랑방> 경찰권력의 횡포
- 3면 ·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제1156호(98. 6. 30 화) / 306

- 1면 · "차별에 맞서 하나로" - 동성에 모임, 전국적 협의체 구성
- 연행됐던 유가족, 벌금형 선고
- 2면 ·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한다" - 결핵병원 민간위탁 대책위 구성
- 주간 인권호름(6월22일-6월28일)
- 3면 · <인권시평> 곤봉으로 때맞는 외국인노동자 - 박천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인권하루소식

98년 1월

(제1036호 - 제1052호)

인권
시평

곤봉으로 매 맞는 외국인노동자

박천응(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는 지난 6월 15일 서울역 광장과 23일 목동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이 때 우리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제도는 민족차별 정책이다' '저임금으로 노예같이 일시키고 그나마 번 돈 벌금으로 다 빼앗는다' '월급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벌금제도는 IMF 보다 더 무섭다' '외국인노동자 실직자 갈 곳 없다,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용산 역에서 밥 먹자'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보내 주세요' 등의 주장을 한 바 있다.

특히 23일 출입국관리소 앞 집회에서는 벌금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30여 명이 자진해서 출국 신고를 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전원 외국인노동자 보호소에 수감되고 말았다.

그러던 지난 6월 26일 한 외국인노동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출입국관리소 보호소 직원들이 '왜 데모를 했느냐?'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아 놓고 '8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는 기합을 주었다'는 제보와, 보호소에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보호소 내에서 곤봉으로 맞았다'는 제보였다.

다음날, 23일 집회 참가자중 아직 출국을 못하고 수감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 4명을 면담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이때 보호소 내에서 폭행을 당한 외국인노동자가 자신이 기록하여 둔 메모를 보여주었다.

"23일 안산에서 점심을 먹고 12시에 출발하였으나 양천구청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1시 45분경 체포되었다. 오후 2시경 봉고차에 실려 목동으로 잡혀갔다. 잡혀가는 동안 경찰이 차안에서 심한 말로 기초 조사를 하였다. 나와 친구는 수감에 채워졌다. 2시10분에 조사실에서 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3시경 보호소에 수감되었다. 수감된 방은 6호실이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들

어와 기합을 주었다. 무릎을 꿇게 하고 손을 머리에 꼭지킨 상태로 1시간 동안 있었다. 4시 20분경 자율귀환 보장을 주장하며 자진 출국 신고를 마친 동료 외국인노동자 여러 사람이 새로 들어왔다. 방글라데시, 네팔, 중국, 몽골, 페루 사람 등 모두 21명이었다. 우리는 다시 5호실로 방을 옮겼고 그곳에서 다시 8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머리에 손가락질 끼는 기합을 받았다. 21명이 수감된 5호실은 3미터 정도 크기로서 2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에는 너무 비좁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앉아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27일 오전에 또 연락이 왔다. 출입국

8시간을 무릎 꿇고 손에
막지를 낀 채 모욕을
당한 외국인노동자들.
그들은 복종이 아닌
복수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관리소 직원들로부터 '왜 어제 목사님께 보호소 내 일을 이야기를 했느냐'고 심한 욕설과 꾸지람을 들었다는 것이다. 수감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집과 예약된 비행기표를 전달하고자 보호소를 방문한 우리 일행 역시 보호소 입구에서 짐승처럼 내쫓김을 당했다. 이렇듯 한국 사람에게도 마구잡이로 대하는 보호소 사람들이라면 보호소 내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있겠는가를 직감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지난 96년 4월 28일 부산에서 붙잡힌 외국인노동자가 구치소로 이송된 후 96년 5-6월 동안 15개국 1백 명의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보호소 혹은

구치소 내에서의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적이 있었다. 그 결과, "당신은 회사, 구치소 안에서 한국 사람에게 맞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0%가 "맞았다"고 답변했다. 또 맞은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70%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인을 해치겠다고 답했으며, 총으로 쏘겠다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 "구치소 안에서 얼마나 있었나?"는 질문에 1-2개월이 80%, 1-3주가 15%, 2개월 이상이 5%였고, "한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외국인들 눈물 때문에 이 나라에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는 답변이 60%, "한국인들은 돈이 있어도 언제나 세상에 살 동안 고통할 것이다"는 대답이 30%,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10%로 나타났다.

한국에 올 때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오지만 한국에서 나갈 때는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보호소의 외국인노동자들은 결코 총약범이나 파렴치범이 아니다. 잡힌 과정을 보면, 일하다 회사 안에서 잡힌 경우가 80%, 유흥가에서 6%, 기숙사에서 잘 때 8%, 여행중 3%, 역전, 버스 정류장에서 잡힌 경우가 3%로 대부분 한국에서 성실히 일하며 돈을 벌고자 했던 외국인노동자였다.

8시간을 무릎꿇고 손에 꼭지킨 채 모욕을 당한 외국인노동자는 복종이 아닌 복수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었음을, 곤봉으로 맞은 외국인노동자의 매 맞음은 가슴으로 흘리는 피흘림의 저항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고작 4명이 잘 수 있는 작은 방에 21명을 몰아 넣어 쪼그려 앉아 밤을 새우게 한 보호소는 차라리 삼청교육대의 짐승 우리였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 속에 민족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책임지고 정부는 서울출입국 관리소 소장과, 보호소 과장 및 폭행 관계자를 처벌해야만 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9호 색인

(제1036호 - 제1156호)

찾아보기

1. 경찰·안기부/고문 및 가혹수사 <경찰폭력> <경찰폭력 피해자 이철용> <안기부> / 312
2. 양심수 <서준식 구속사건> <기획-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민가협 목요집회> / 312
3. 국가보안법 <관악노동청년회> <국제사회주의자그룹>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범민련> <부천민주노동청년회> <진보민중청년연합> <기타 조직사건> / 314
4. 보안관찰법 / 316
5. 집회 및 시위, 표현의 자유 <불심검문> <레드헌트> / 316
6. 사생활침해 <CCTV> <전자주민카드> / 317
7. 정보통신의 자유 / 318
8. 과거청산 <제주 4·3> <5·18>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일본군 위안부> / 318
9. 국가인권위원회 <특집- 국민인권기구(곽노현 교수)> / 319
10. 사법개혁 / 319
11. 감옥의 인권 / 319
12. 사회복지 / 320
13. 건강권 <산업재해> <국립목포결핵병원> / 321
14. 주거권(철거민) <도원동 사건> / 321
15. 노동 <부당노동행위사업장> <한국타이어> <실업·해고> <재벌개혁>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택시노동자> <민주노총> <전교조> / 322
16.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 324
17. 빈민·노점상 / 324
18. 어린이·청소년 / 325
19. 여성 <성폭력> / 325
20. 장애인 <에바다농아원> / 325
21. 동성애자 / 326
22. 학원(한총련) / 326
23. 인권교육 / 326
24. 환경 / 326
25. 평화 <대인지뢰> / 327
26. 북한 / 327
27. 주한미군 / 327
28. 국제인권소식 <동티모르> <유엔인권위원회> / 327
29. 민간단체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민교협> <민변> <민가협> <전국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정의평화정보센터(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지식인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국제단체>
<유가협/추모단체연대회의>→<과거청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주한미군> / 328
30. 기타 <신자유주의와 IMF> <국회인권포럼> <아시아인권현장선언대회> <유서대필사건> / 330
31. 고정란 <인권시평>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인권간행물> <인권영화>
<사랑방만평> <주간인권호름> <월목차> / 332

찾는법: 98. 2. 13 1 1061/ 82 → 98년 2월 13일자 1면(1061호) 합본 10호 82쪽

1. 경찰·안기부/고문 및 가혹수사

- 헌병대 가혹수사, 2천만원 배상 판결/98. 2. 13 1 1061 / 82
- <경찰폭력>
- COBP, 3월 둘째주 경찰폭력 반대 캠페인 제안/98. 2. 3 1 1053 / 65
- '평화' 깃발은 '국민의 경찰', 한총련 대의원대회 폭력 난무/98. 4. 14 1 1103 / 180
- 실명위험 외면 수사강행 - 경찰, 폭력적 연행 및 수사관행 여전/98. 5. 5 1 1118 / 216
- 누구는 통근, 누구는 밤샘 - 국제사회주의자 수사, 부당관행 되풀이/98. 5. 9 1 1121 / 223
- '우연한 만남' 트집 - 기획사 실장, 경찰에 시달려/98. 5. 15 1 1125 / 231
-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98. 5. 29 1 1135 / 254
- '현상금 3백만원' - 민가협, 이근안 수배/98. 6. 12 1 1144 / 279
- <경찰폭력 피해자 이철용 씨>
- 이철용 씨 사건 가해자 드러나, 시위진압 전경 "방패로 폭행" 시인/98. 4. 8 1 1099 / 172
- 이철용 씨, 전 성동경찰서장 등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98. 5. 5 1 1118 / 216
- 이철용 씨, 고소인 진술에서 "성동경찰서, 사건 은폐" 주장/98. 6. 19 2 1149 / 291
- <안기부>
- 김진균 교수, 안기부 상대 '명예훼손' 소송/98. 1. 15 2 1043 / 41
- 구태 못 벗은 안기부, 김형찬 씨 인권피해 증언 저지 기도/98. 2. 6 2 1056 / 73
- 안기부 해체·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집회/98. 2. 21 1 1067 / 95
- 김형찬 대책위 기자회견, 안기부 인권유린도 규명해야/98. 3. 12 1 1080 / 126
- "안기부, 가족 눈앞에서 고문" - 민가협 목요일집회, 안기부 개혁 촉구/98. 3. 13 1 1081 / 128
- 시민연합준비위, '북풍공작 진상규명' 촉구/98. 3. 21 2 1087 / 144
- 김형찬대책위, 안기부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 - 안기부청사 앞 집회/98. 3. 26 2 1090 / 151
- '북풍' 안기부 개혁으로, 4월 2일 안기부 개혁 토론회/98. 3. 28 2 1092 / 155
- 안기부 개혁 방향 토론회, "국회 통제강화, 직권남용 방지" 절실/98. 4. 3 2 1096 / 167
- 민가협 목요일집회, 안기부 고문사례 폭로·정형근 의원 규탄/98. 4. 10 1 1101 / 176
- 고문...자포자기...허위자백,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양홍관 씨 폭로/98. 4. 10 2 1101 / 177
- "고문수사관 승승장구" 김삼석·강용주·김진성 씨 고문사례 발표/98. 4. 17 2 1106 / 188
- "구미유학생사건 고문조작"- 목요일집회, 양동화 씨 사례 폭로/98. 4. 24 1 1111 / 198
- "허위자백 외 물증 없자 기자회견 시켜", 양동화 씨 증언/98. 4. 24 2 1111 / 199
- <광고> "22일간의 고백" 시사회/98. 5. 9 2 1121 / 224
- 안기부 약물수사 의혹제기, 진관스님 고문피해 폭로/98. 5. 23 1 1131 / 246

2. 양심수

- 나우누리 '강용주 인권방', 최연소 장기수 석방운동 전개/98. 1. 8 2 1038 / 30
- 70세 장기수 암투병중- 대전교도소 신인영 씨/98. 1. 10 1 1040 / 33
- 김대중 당선자, '취임후 사면·복권 실시'/98. 1. 15 1 1043 / 40

- 천주교 전국사제단 새해 첫 시국기도회, "양심수 석방" 촉구/98. 1. 24 2 1050 / 56
- 출소한 양심수, 대다수 미복권 - 미복권자 1천 6백여 명/98. 1. 27 1 1051 / 57
- 세계고문방지기구, 진관스님 석방 촉구/98. 2. 4 2 1054 / 69
- 엠네스티, 장기수 신인영씨 석방 및 교도소 의료실태 개선 요청/98. 2. 7 1 1057 / 74
- 엠네스티, "한국엔 양심수 더 있다"/98. 2. 7 1 1057 / 74
- 민가협·전국연합, 양심수 전원석방 캠페인 돌입/98. 2. 7 1 1057 / 74
- 김종구 법무, "양심수 기준 정한 것 없다"/98. 2. 10 1 1058 / 76
- 대구지역 인권·사회단체, "선별 사면 수용 못한다"/98. 2. 11 1 1059 / 78
- 일본 전국회의,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양심수 석방 탄원/98. 2. 11 2 1059 / 79
- 전국연합 "양심수 석방·안기부 해체" 주장/98. 2. 17 1 1063 / 87
- 선별석방 반대·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거리서명 1만명/98. 2. 20 1 1066 / 93
- 안기부 해체·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집회/98. 2. 21 1 1067 / 95
- 방한중인 엠네스티 대표단, 양심수 가족 만나/98. 2. 24 1 1068 / 97
- 국제엠네스티 방한, 양심수 석방촉구 활동/98. 2. 24 1 1068 / 97
- '김나중 석방 대책위' 창립 - 각계인사 참여, "민족대화합" 촉구/98. 4. 14 2 1103 / 181
- 하나둘 늘어가는 양심수 - 새정부, 국보법 구속 여전/98. 4. 22 2 1109 / 195
- 3월 현재 양심수 3백62명, 민가협 13차 정기총회 가져/98. 4. 25 2 1112 / 201
- "석탄특사, 양심수 포함하라" - 전국연합, 법무부장관에 공개서한/98. 4. 25 2 1112 / 201
-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98. 4. 29 1 1114 / 204
- 법무부 "석탄특사 계획없어" - 청년단체들, 양심수 석방 촉구/98. 5. 1 2 1116 / 212
- 김 대통령의 이중적 '전향관', "사상 자유 인정하나, '다짐' 철차 있어야"/98. 5. 16 2 1126 / 234
- 독일민중제, 김 대통령에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서한/98. 5. 21 2 1129 / 243
- 사상전향제 철폐 주장, 강용주 씨 20일간 옥중단식/98. 5. 22 2 1130 / 245
- 출소장기수 금제성 씨 입원, 말기 간암 등 시한부/98. 6. 11 2 1143 / 278
-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임후 158명 구속/98. 6. 12 2 1144 / 280
- 양심수 군면제 요청 - 양군모 "이중수감" 주장/98. 6. 25 2 1153 / 299

<3·13 특별사면>

- 오늘 특별사면 예정, 11시 법무부 공식 발표/98. 3. 13 1 1081 / 128
- <속보>- 3.13 특별사면 명단/98. 3. 13 호외 / 130
- 세계최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 사상전향 잣대, 김영삼 정부 절반 수준/98. 3. 14 1 1082 / 133
- 주요 미석방 양심수/98. 3. 14 1 1082 / 133
- "각오하고 있었읍니다" - 사면 제외된 세계최장기수 우용각 씨/98. 3. 14 2 1082 / 134
- 엠네스티, 전국회의 성명, 장기수 선별석방 '실망'/98. 3. 14 2 1082 / 134
- 36년만의 출소, 최하중 씨 - "기쁜 게 부끄럽습니다" 첫 소감/98. 3. 14 2 1082 / 134
- "전두환·노태우는 나왔는데...", 5·6공 양심수 47명중 단 3명 석방/98. 3. 17 1 1083 / 135
- 낙성대의 새 식구들 - 출소 장기수, 또 하나의 시작/98. 3. 19 1 1085 / 139

<기획>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 ① 한총련 구속자 3백여명 달해/98. 2. 6 1 1056 / 72
- ②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98. 2. 7 2 1057 / 75

| | |
|--|-------|
| ③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98. 2. 11 2 1059 | / 79 |
| ④ 사상전향 강요는 반인권/98. 2. 25 2 1069 | / 100 |
| ⑤ '창살 없는 감옥생활' 수배·미복권자/98. 2. 26 2 1070 | / 102 |

<민가협 목요집회>

| | |
|--|-------|
| · 암투병 장기수 어머니의 눈물겨운 편지/98. 1. 16 1 1044 | / 42 |
| · "아빠, 보고싶어요"/98. 2. 27 1 1071 | / 57 |
| · 유엔인권위 선정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 8인/98. 3. 6 1 1076 | / 117 |
| · "당신과 함께 따뜻한 봄을 맞고 싶습니다" - 박래군(구국전위) 씨 아내/98. 3. 6 2 1076 | / 118 |
| · "안기부, 가족 눈앞에서 고문" - 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개혁 촉구/98. 3. 13 1 1081 | / 128 |
| · '체제전복세력' 발언 규탄 - 민가협, 빗속 목요집회/98. 3. 20 1 1086 | / 141 |
| · 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고문사례 폭로·정형근 의원 규탄/98. 4. 10 1 1101 | / 176 |
| · "안기부 고문수사관 승승장구", 김삼석·강용주·김진성 씨 고문 폭로/98. 4. 17 2 1106 | / 188 |
| · "구미유학생사건 고문조작" - 목요집회, 양동화 씨 사례 폭로/98. 4. 24 1 1111 | / 198 |

<인권운동가 서준식 구속사건>

| | |
|---|-------|
| ·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98. 1. 6 1 1036 | / 25 |
| · 국제 관심 지속, 독일정부 "재판참관 고려"/98. 1. 9 2 1039 | / 32 |
| · 서준식 씨 변호인단, 기부금품모집규제법·국보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98. 1. 14 1 1042 | / 38 |
| ·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98. 1. 14 1 1042 | / 38 |
| · 서준식 대표 재판 연기/98. 1. 14 1 1042 | / 38 |
| · 서준식 홈페이지 개설/98. 1. 14 2 1042 | / 39 |
| · 미결수 처우, 현재 심판 회부 - 서준식 씨 헌법소원 받아들여/98. 1. 21 1 1047 | / 49 |
| ·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 씨 변호인 위헌제청 신청/98. 1. 23 1 1049 | / 53 |
| ·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 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98. 1. 24 1 1050 | / 55 |
| · 국제법률가협회·국제펜클럽, 서준식 씨 석방 촉구/98. 1. 24 2 1050 | / 56 |
| · 서준식 씨 1차 공판 "양심의 자유 포기하는 순간, 살아 있는게 아니다"/98. 1. 31 1 1052 | / 59 |
| · 서준식 피고인, 검찰 석명 요구사항/98. 1. 31 1 1052 | / 59 |
| · <주요내용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98. 1. 31 2 1052 | / 60 |
| ·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석방, 서부지원 형사1단독 급보석 결정/98. 2. 6 1 1056 | / 72 |
| · 대만인권촉진회, 서준식 씨에 성금/98. 4. 3 2 1096 | / 167 |
| · 서준식 씨 4월혁명상 수상/98. 4. 18 2 1107 | / 190 |
| · '박해받은 작가상' 서준식 씨, 휴먼라이츠워치 선정/98. 5. 23 2 1131 | / 247 |

3. 국가보안법

| | |
|--|------|
| · 진관스님 상고심, 원심대로 3년6월 확정/98. 1. 6 2 1036 | / 26 |
| · 박지동 교수 1차공판 예정/98. 1. 8 2 1038 | / 30 |
| · 박지동 교수 공판 연기/98. 1. 10 2 1040 | / 34 |
| · 국보법 폐지운동 재검토,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샵」/98. 1. 17 1 1045 | / 44 |
| · 박지동 교수 병보석/98. 1. 22 1 1048 | / 51 |

| | |
|---|-------|
| · 아시아인권위, 이장희 교수 출금해제 요청, 공동행동 촉구/98. 3. 25 1 1089 | / 148 |
| · 컴퓨터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에 이적표현물 적용/98. 4. 21 1 1108 | / 191 |
| · 하나둘 늘어가는 양심수- 새정부, 국보법 구속 여전/98. 4. 22 2 1109 | / 195 |
| · 대동출판사 사장 국보법 연행, 항일무장투쟁사 등 이적표현물 혐의/98. 5. 1 1 1116 | / 211 |
| · 사상·표현의 자유 촉구, 통신인들 "국보법 철폐" 주장/98. 5. 5 2 1118 | / 217 |
| · 정치연대·전해투 유인물 등 붙은 낙인/98. 5. 13 1 1123 | / 227 |
| · <자료> 검찰이 지목한 '불순유인물'/98. 5. 13 1 1123 | / 227 |
| ·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98. 5. 29 2 1135 | / 255 |
| · 간첩 불고지 혐의 무죄, 함운경 씨 항소심/98. 6. 13 1 1145 | / 281 |

<관악노동청년회>

| | |
|--|-------|
| · 관악노동청년회 회원,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98. 2. 19 2 1065 | / 92 |
| · 관악노동청년회, 이적단체 혐의 수사/98. 2. 20 1 1066 | / 93 |
| ·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 KNCC,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98. 3. 20 2 1086 | / 142 |
| · 「새벽 아침에」 - 구속중인 윤순재(관노청 회장) 씨의 시/98. 3. 20 2 1086 | / 142 |
| · 목비권 행사에 패점죄, '관노청' 중형 구형/98. 5. 13 1 1123 | / 227 |
| · "관노청, 이적단체" 판결, 2명 실형·6명 집행유예/98. 5. 29 1 1135 | / 254 |

<국제사회주의자그룹>

| | |
|---|-------|
| · 국제사회주의자, 국보법 적용 무더기 연행/98. 5. 8 1 1120 | / 221 |
| · 누구는 통근, 누구는 탐샘 - 국제사회주의자 수사, 부당관행 되풀이/98. 5. 9 1 1121 | / 223 |
| · 국제사회주의자 검거, 프락치 덕/98. 5. 13 2 1123 | / 228 |

<범민련>

| | |
|--|-------|
| · 범민련 민경우 씨 등,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98. 1. 23 1 1049 | / 53 |
| · 범민련 이천재 부의장, 징역 2년6월 선고/98. 3. 18 1 1084 | / 137 |
| · 범민련 민경우 씨 항소 기각/98. 5. 1 2 1116 | / 212 |
| · 범민련 김영제 씨 연행, 안기부 이송 예정/98. 5. 2 1 1117 | / 214 |
| · 범민련 김영제 씨 무혐의 석방, 안기부 이례적 조치/98. 5. 5 2 1118 | / 217 |

<부천민주노동청년회>

| | |
|---|-------|
| · 부민노청 구속자, 인천구치소 가혹행위 주장/98. 1. 7 1 1037 | / 27 |
| ·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 등 20여종 반입 불허/98. 3. 7 1 1077 | / 119 |
| · 인천구치소 서신검열 내부규정/98. 3. 7 1 1077 | / 119 |
| · 인천구치소, 약속 뒤집어-재소자 도서반입 불허/98. 3. 17 1 1083 | / 135 |
| · 재소자 알권리 침해-인천구치소, 행형법 관련 서신불허/98. 3. 24 1 1088 | / 145 |
| · 부민노청, 3년·5년 구형/98. 3. 26 1 1090 | / 150 |
| · 부민노청, '이적단체 혐의' 유죄/98. 4. 16 1 1105 | / 185 |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 | |
|---|-------|
| ·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12명 대공분실 연행/98. 6. 3 1 1138 | / 266 |
|---|-------|

· 안민청 석방 촉구, 국보법 적용 배경 의혹/98. 6. 13 2 1145 / 282

<진보민중청년연합>

· 진보민청 중앙간부 전원연행- '양심고백운동' 본격화 앞둔 시점/98. 6. 26 1 1154 / 300

<기타 조직사건>

- 미래통신 4명, 컴퓨터통신 게시물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98. 1. 6 1 1036 / 25
- "동아대 간첩단, 물증없이 선고"- 3년6월 선고, 가혹행위 언급 없어/98. 2. 18 1 1064 / 89
-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조작 결론, 이적단체 구성 혐의 무죄 선고/98. 3. 3 1 1073 / 111
-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98. 3. 11 2 1079 / 125
- '천리마' 이적단체 아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98. 5. 15 2 1125 / 232
- 인제대생 11명 무더기 연행/98. 5. 29 2 1135 / 255
- 이적표현물 혐의 무죄, '미래통신' 구속자 석방/98. 6. 6 2 1140 / 272

4. 보안관찰법

-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함세환 씨, 집행유예 선고/98. 1. 22 1 1048 / 51
-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방양균 씨, 징역 1년 6월 구형/98. 1. 23 2 1049 / 54
-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으로 벌금형 선고/98. 2. 20 1 1066 / 93
-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98. 3. 3 1 1073 / 111
- 무단침입에 불법수색까지, 보안관찰대상자 김용규 씨등/98. 6. 11 1 1143 / 277
- 보안관찰법 위반죄, 벌금 20만원 선고/98. 6. 19 2 1149 / 291
- "재범 판단 근거없다" -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98. 6. 27 1 1155 / 303
-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98. 6. 27 3 1155 / 305

5. 집회 및 시위, 표현의 자유

· 서울대, 독립영화 상영 - 사전심의 불복작품 한자리에/98. 6. 18 1 1148 / 288

<집회와 시위의 자유>

- "한총련 평화집회 보장하라", 사회단체· 한총련 비주류대학 성명 잇따라/98. 4. 10 1 1101 / 176
- 뒤로 가는 '국민의 정부' - 시위진압 방침, 인권피해 되풀이 우려/98. 5. 8 1 1120 / 221
- 각계인사, "한총련 이적 매도 중단" 및 "집회와 시위 자유 보장" 촉구/98. 5. 30 1 1136 / 257
- 경찰, 합법집회에 도발 - 5·30 집회, 불법검문· 연행 무법천지/98. 6. 2 1 1137 / 263
- 집회방해 용납 안한다 - 사회단체, 경찰청장 고발/98. 6. 4 1 1139 / 269
- 해산하는 대열, 등뒤에서 덮쳐 - 경기도경, 평화집회 대학생 폭행/98. 6. 9 2 1141 / 274
- 경찰에 맞서지 말라? -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 브리핑 방해/98. 6. 24 1 1152 / 296
-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98. 6. 25 1 1153 / 298

<불심검문>

- 법원 판결 무색, 불법검문 여전/98. 2. 10 1 1058 / 76
- 서울대생 불법검문 거부운동 전개, 현장에서 항의...집단소송 제기키로/98. 3. 24 1 1088 / 145
- 불심검문 항의에 또 폭력대응 - 서울대생, 관악경찰서장 등 고발키로/98. 3. 28 2 1092 / 155
- 인권운동사랑방,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 예정/98. 4. 4 1 1097 / 168
- "현행 불심검문은 위법", 불심검문 워크숍 열려/98. 4. 8 1 1099 / 172
-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 시작돼 - 불심검문 피해접수 전화 개설/98. 4. 16 2 1105 / 186
- '불법 불심검문'에 법적대응 - 서울대 총학생회, 관악경찰서장 형사고발/98. 4. 17 1 1106 / 187
- 불심검문 2차 캠페인 전개/98. 4. 18 2 1107 / 190
- 불법 검문 불복중운동 대학가 확산조짐, 통신공간 선언운동 전개/98. 4. 23 2 1110 / 197
- 말뿐인 경찰의 '친절검문', 신고된 집회에서 불법검문/98. 4. 25 2 1112 / 201
- 명동성당 경찰 모습 사라져, 불심검문 캠페인 영향/98. 4. 29 2 1114 / 205
- 연세대 불심검문 캠페인 한창, 27일 동아리연합회 설명회/98. 4. 29 2 1114 / 205
- 불법검문 불복중운동 확산,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선언 발표/98. 5. 1 1 1116 / 211
- 사라진 '친절검문', 대학가 불법검문 재개/98. 5. 8 1 1120 / 221
- 반성없는 경찰, 불심검문 항의에 폭행 대응/98. 5. 23 2 1131 / 247
- 못버리는 옛버릇, 불심검문 다시 활개/98. 5. 29 3 1135 / 256
- 경찰, 합법집회에 도발 - 5·30 집회, 불법검문· 연행 무법천지/98. 6. 2 1 1137 / 263
- 국본, 공동번호인단 구성 - 파업탄압· 불법검문 대응/98. 6. 2 2 1137 / 264
- 길가던 대학생, 황당한 구금 - 불심검문 응했더니 어느새 피의자로/98. 6. 9 1 1141 / 273

<4·3 다큐멘터리 레드헌트>

- 제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레드헌트> 상영/98. 1. 6 2 1036 / 26
- 푸른영상 김동원 감독 연행, <레드헌트>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98. 1. 10 1 1040 / 33
- 김동원 감독 영장실질심사 거쳐 석방/98. 1. 13 1 1041 / 35
-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위원회, 제주 4·3 진상규명 탄압 중지 요구/98. 1. 13 2 1041 / 36
- 전세계에 공개되는 이적표현물 - <레드헌트>, 베를린영화제 공식 초청/98. 1. 17 1 1045 / 44
- 조성봉 <레드헌트> 감독 체포, 베를린영화제 참가 불투명/98. 2. 12 1 1060 / 80
- 조성봉 감독 체포 관련, 베를린영화제 참석자들 항의 움직임/98. 2. 13 1 1061 / 82
- 조성봉 감독 구속영장 기각/98. 2. 14 1 1062 / 85
- 서준식 씨, 씨네21상 수상/98. 2. 18 1 1064 / 89
- 레드헌트 탄압 재연, 각 대학 4·3 기념 레드헌트 상영/98. 4. 4 2 1097 / 169

6. 사생활침해

·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98. 6. 12 1 1144 / 279

<CCTV>

- CCTV 감시 아래 근무,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98. 5. 16 2 1126 / 234
- 버스 안에도 '감시의 눈', 일반버스 등 폐쇄회로TV 설치/98. 6. 10 1 1142 / 275

<전자주민카드>

- “전자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인사, 김대중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98. 1. 7 1 1037 / 27
-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포기 안해” - ‘근거법을 제정, 예산 집행’ 이유/98. 1. 10 2 1040 / 34
- 전자주민카드 물밑추진, 행정자치부 국회 로비 등 작업 활발/98. 6. 17 1 1147 / 286
- 행정자치부, “전자주민카드 추진 불가피”/98. 6. 18 1 1148 / 288

7. 정보통신의 자유

- ‘사이버 인권선언’ 채택 움직임 - 통신연대 검열, 사이버팀으로 개편/98. 3. 27 1 1091 / 152
- <발췌>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기초 제안서)/98. 3. 28 2 1092 / 155
- 참세상, 개인정보 유출 거부 - 경찰, 이용자 정보 요구/98. 5. 26 1 1132 / 248

8. 과거청산

- 참여연대 연회동 시위, “전·노 재산 몰수” 주장/98. 1. 10 2 1040 / 34
-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 가상법정 친일파 예술인 단죄/98. 3. 3 2 1073 / 112
-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 전쟁피해 제일한국인, 헌법소원/98. 6. 27 2 1155 / 304

<제주 4·3>

- 제주 4·3 항쟁 명예회복 선포, 3월 28일-4월 5일 기념주간/98. 3. 3 2 1073 / 112
- 4·3 50주년 진상규명, 피해자 배상 요구, 서울·제주등 각지 행사 예정/98. 3. 25 2 1089 / 149
- 4·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발표명령자·미국책임 등 규명 안돼/98. 4. 2 1 1095 / 164
- 4·3 50주년 행사 안내/98. 4. 2 1 1095 / 164
-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주요내용/98. 4. 2 2 1095 / 165
- 레드헌트 탄압 재연, 각 대학 4·3 기념 레드헌트 상영/98. 4. 4 2 1097 / 169
- “왜 이제서 우리를 위로하는가” - 4·3희생자 진혼곡/98. 4. 7 2 1098 / 171
- 4·3 추모행사 마무리, “진실규명, 이제 출발”/98. 4. 17 1 1106 / 187

<5·18 관련>

- 5·18 영화제작 후원회원 모집/98. 1. 14 1 1042 / 38
- “인권의 눈으로 본 광주” - 한국사회학회, 5·18 국제학술심포지움/98. 5. 15 2 1125 / 232
- <요안 갈통 기조연설 요약> “인권 보편적인 것인가 아닌가”/98. 5. 15 2 1125 / 232
- “5·18 정신 인권적 계승”, 광주 국제인권센터 설립 논의/98. 5. 27 2 1133 / 251

<민족민주열사·희생자>

- 늦봄 문익환 목사 4주기 추도식/98. 1. 17 1 1045 / 44
- 대답없는 메아리 “의문사 진상규명” - 유가협 등, 대국민캠페인 돌입/98. 4. 25 1 1112 / 200
- 유가족들 22일째 한맺힌 울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이번에는 꼭...”/98. 5. 21 1 1129 / 242

-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학술회의/98. 5. 23 2 1131 / 247
- 5·6공 군의문사 밝혀라, 유가협 “한점 의혹없이 진상규명해야”/98. 5. 26 1 1132 / 248
- 유가족, “희망 보였다” - 6월부터 2차 캠페인 전개/98. 6. 2 2 1137 / 264
- 이내창 씨등 사인 밝혀라, 유가족들 안기부 항의방문/98. 6. 13 1 1145 / 281
- 유가족 고향 제속돼, 기무사 항의 방문/98. 6. 20 1 1150 / 292
-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유가족 12명 경찰 연행/98. 6. 27 2 1155 / 304
- 연행됐던 유가족, 벌금형 선고/98. 6. 30 1 1156 / 306

<일본군 위안부>

- 3백회 수요집회, 일 정부 태도 여전/98. 2. 19 1 1065 / 91
-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 여연, ‘위안부 개인배상’ 촉구/98. 4. 17 1 1106 / 187
-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98. 4. 21 1 1108 / 191
- ‘위안부 일본 배상’ 물건너 가나 - 한국정부, ‘배상 요구’ 사실상 포기/98. 4. 22 1 1109 / 194

9.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대통령 공약사항...설치여부는 불확실/98. 1. 16 1 1044 / 42
-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인권위 기능엔 이견/98. 5. 22 1 1130 / 244
- 국가인권위 토론회- 엠네스티 관계자,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98. 6. 25 2 1153 / 298

<특집> 국민인권기구-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곽노현 방송대 교수)

- ① 보편적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98. 1. 16 2 1044 / 43
- 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98. 1. 21 2 1047 / 50
- 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98. 2. 13 3 1061 / 84
- ④ 호주 인권위, 차별금지 영역에서 눈부신 성과/98. 2. 20 2 1066 / 94
- ⑤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98. 3. 4 2 1074 / 114

10. 사법개혁

- 민변·참여연대, 법조비리 철저수사 촉구/98. 2. 18 1 1064 / 89
- 참여연대, “비리 법조인 즉각 소환”촉구/98. 2. 19 2 1065 / 92
- 참여연대, 검찰 발표 비난 “의정부 지청 재수사” 촉구/98. 3. 7 1 1077 / 119

11. 감옥의 인권

-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98. 1. 6 1 1036 / 25
- 부민노청 구속자, 인천구치소 가혹행위 주장/98. 1. 7 1 1037 / 27

| | |
|--|-------|
| · 70세 장기수 암투병중 - 대전교도소 신인영 씨/98. 1. 10 1 1040 | / 33 |
| · 유력(有力) 석방· 무력(無力) 구속, 홍인길 씨 풀고 암투병 장기수 가둬/98. 1. 15 1 1043 | / 40 |
| · 미결수 처우, 현재 심판 회부 - 서준식 씨 헌법소원 받아들여/98. 1. 21 1 1047 | / 49 |
| · 유림의회, 한국 사형집행 규탄/98. 1. 21 1 1047 | / 49 |
| ·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 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98. 1. 24 1 1050 | / 55 |
| ·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98. 1. 24 2 1050 | / 56 |
| · 엠네스티, 장기수 신인영씨 석방 촉구· 한국 교도소 의료실태 개선도 요청/98. 2. 7 1 1057 | / 74 |
| · 전주 사회단체, 재소자 인권침해 항의하며 전주교도소 농성/98. 2. 11 1 1059 | / 78 |
| · 전주교도소, 비전향장기수 면회약속 파기/98. 2. 12 1 1060 | / 80 |
| · 영등포구치소장, 재소자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 당해/98. 2. 13 1 1061 | / 82 |
| · 전주교도소, 목사· 신부 등 폭행/98. 2. 13 1 1061 | / 82 |
| · 전주교도소장 공식 사과, 장기수 면회 재약속/98. 2. 17 2 1063 | / 88 |
| · 성동구치소 노역자 폭행당해 숨져...검찰, 사인규명 착수/98. 2. 27 2 1071 | / 104 |
| ·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 등 20여종 반입 불허/98. 3. 7 1 1077 | / 119 |
| · 인천구치소 서신검열 내부규정/98. 3. 7 1 1077 | / 119 |
| ·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식사슬 묶어 -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갑/98. 3. 10 1 1078 | / 121 |
| · 재소자 김 씨가 밝힌 징벌과정 - 교도소장과 눈 마주친 죄/98. 3. 10 2 1078 | / 122 |
| · 전직 청송보호감호소장 피소 - 가혹행위 은폐 의혹, 문서위조 혐의/98. 3. 12 1 1080 | / 126 |
| · 교도소 인권실태 설문조사 -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98. 3. 13 1 1081 | / 128 |
| · 출소자 1천명에 설문지 배포/98. 3. 14 2 1082 | / 134 |
| · 인천구치소, 약속 뒤집어 - 재소자 도서반입 불허/98. 3. 17 1 1083 | / 135 |
| · 교도소 인권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할/98. 3. 17 1 1083 | / 135 |
| · 보복조치 이송도 정당? - 전주지법, 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기각/98. 3. 21 1 1087 | / 143 |
| · 재소자 알권리 침해 - 인천구치소, 행정법 관련 서신불허/98. 3. 24 1 1088 | / 145 |
| ·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98. 4. 18 1 1107 | / 189 |
| ·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 소년수, "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98. 4. 22 2 1109 | / 195 |
| · 3개월 개발고문, 15년 폐쇄독거 - 대도 조세형, 청송교도소 만행 폭로/98. 4. 23 1 1110 | / 196 |
| · <해설> 청송교도소 불법 인권유린/98. 4. 23 1 1110 | / 196 |
| ·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98. 5. 20 1 1128 | / 239 |
| ·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98. 6. 3 1 1138 | / 266 |
| ·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공판 진행/98. 6. 6 1 1140 | / 271 |
| · 전채천 씨에게 새 삶을, <페스카마호>사건 구명운동 재개/98. 6. 23 1 1151 | / 294 |
| · <광고> 감옥 인권실태 분석· 연구할 전문인력 모집/98. 6. 30 1 1156 | / 306 |

12. 사회복지

| | |
|---|-------|
| · 참여연대, 사회복지개혁위 구성 제안, 김 당선자 사회복지정책 후퇴 비판/98. 1. 8 2 1038 | / 30 |
| · 조규향 사회복지수석 망언,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복지병 초래"/98. 3. 19 2 1085 | / 140 |
| · 사회복지학계 공동성명,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98. 5. 13 2 1123 | / 228 |

13. 건강권(보건의료)

| | |
|--|------|
| · 의료구조 전환 시급 -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98. 1. 23 2 1049 | / 54 |
|--|------|

<국립목포결핵병원>

| | |
|---|-------|
| · 국립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 반발, 결핵환자들 명동성당 농성예정/98. 6. 17 1 1147 | / 286 |
| ·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결핵환자, 명동성당 농성 돌입/98. 6. 18 1 1148 | / 288 |
| · 결핵환자, 국가 관리해야- 국립결핵병원 민영화 방침, 복지 축소 우려/98. 6. 20 2 1150 | / 293 |
| · 노숙 농성 잇따라-비용바다, 질병 고통 호소/98. 6. 25 2 1153 | / 299 |
| ·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한다"- 결핵병원 민간위탁 대책위 구성/98. 6. 30 2 1156 | / 307 |

<산업재해>

| | |
|---|-------|
| · 노동부 산업안전과 폐지, 산재예방책 실종위기/98. 3. 6 2 1076 | / 118 |
| · 노건연 산업보건· 안전분야 토론회, 산재추방운동 10주년 평가/98. 3. 17 2 1083 | / 136 |
| · 교통분담 명분, 산재급여 감축- 노동계, "생명권 박탈" 반발/98. 5. 14 2 1124 | / 230 |

14. 주거권(철거민)

| | |
|---|-------|
| · 철거폭력 편파수사 시비 재연 - 용산구 중립동 재개발지구/98. 1. 15 2 1043 | / 41 |
| · 전농동 철거민 대거 연행/98. 2. 13 2 1061 | / 83 |
| · 경찰· 건설회사 손발 척척, 전농동 철거민 무더기 연행 후 숙소강제 철거/98. 2. 14 1 1062 | / 85 |
| · 잘난 '법· 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앉을 판/98. 2. 17 1 1063 | / 87 |
| · 98빈민대회, 노점상· 철거민 생존권투쟁 결의 다져/98. 2. 21 2 1067 | / 96 |
| ·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98. 5. 23 1 1131 | / 246 |
| · 주거권· 일자리 요구, 무주택자 종묘공원 집회/98. 6. 10 2 1142 | / 276 |
| · 다원건설(구 직준), 불법용역 드러나 - 경찰청, 의법조치 약속/98. 6. 25 1 1153 | / 298 |

<도원동 사건>

| | |
|---|-------|
| · 도원동 철거폭력, 적준 개발 또 고소당해/98. 1. 7 2 1037 | / 28 |
| · 도원동 철거폭력, 주민 중태 - 인명 무시...알고보니 또 적준!/98. 3. 31 1 1093 | / 157 |
| · 도원동 철거폭력, 적준용역 확실 - 철거민 고사작전, 음식물 반입 차단/98. 4. 1 1 1094 | / 161 |
| · 도원동 사건 현장 그림/98. 4. 1 1 1094 | / 161 |
| · 도원동 폭행 피해자 이범희씨 증언, "나를 폭행한 건 용역장패들"/98. 4. 3 1 1096 | / 166 |
| · "강제철거 중단" 촉구, 아시아주거권연합 등 공동성명/98. 4. 4 1 1097 | / 168 |
| · "개발지구 생활권· 주거권 최악" - 도원동 비대위, '순환식 재개발' 촉구/98. 4. 15 1 1104 | / 183 |
| · 물대포 5시간 난사· 고공침투 - 도원동 농성자 전원 연행/98. 4. 24 1 1111 | / 198 |
| · 도원동 골리앗 농성자들 계속 구금, 항의시위자들도 연행/98. 4. 25 1 1112 | / 200 |
| · 도원동 철거민 용산구청 앞 단식농성 - 경찰, 철거민 대책위원장 구속/98. 5. 21 2 1129 | / 243 |
| · 도원동 사태 지속, 주민들 단식농성/98. 5. 27 2 1133 | / 251 |
| · 도원동 백석호 씨 의식회복, 화상경위 실마리 찾을 듯/98. 6. 4 1 1139 | / 269 |
| · 용산구청 앞의 어린이 노숙자, "구청 아저씨들 제일 무서워요"/98. 6. 10 2 1142 | / 276 |

15. 노동

- 일본역류 후꼬꾸 노동자 귀국/98. 1. 6 2 1036 / 26
- 철도해고노동자, 국민회의 당사 농성/98. 2. 10 2 1058 / 77
- 노동계· 학계 진보인사들, "노사정 재협상 해야 한다"/98. 2. 13 2 1061 / 83
- "노사정 합의, 정치권이 됐다", 민변 등 노동법통과 규탄/98. 2. 17 1 1063 / 87
- 각계 지식인 123명 선언,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 촉구/98. 2. 24 1 1068 / 97
- 지난해 노동법 파업 유죄선고, 사법부도 노동자탄압/98. 3. 28 1 1092 / 154
- "근로자파견대상 최소화" 촉구, 한국여성노동자회의/98. 3. 31 2 1093 / 158
- "노동은 국민의 권리"- 국민승리21, 1차 실업자대회 가져/98. 4. 24 2 1111 / 199
- 분노의 폭발, 제108주년 세계노동절/98. 5. 2 1 1117 / 214
- <노동절 특집-실업자운동> 빈곤계층과 연대를 통한 저항운동/98. 5. 2 2 1117 / 215
- 미국내, 한국노동시장 유연성 논란/98. 5. 2 2 1117 / 215
- 공안당국, 노동자 추적- 5·1절 시위자 사진채증/98. 5. 14 1 1124 / 229
- 국제앰네스티, 파업권 존중 촉구/98. 5. 28 1 1134 / 252
- "우리는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28일 종묘공원에서 만난 사람들/98. 5. 29 2 1135 / 255
- '3자개입금지' 부활, 검찰 "권영길 씨 형사처벌"키로/98. 5. 30 1 1136 / 257
- 국본, 공동변호인단 구성- 파업탄압· 불법검문 대응/98. 6. 2 2 1137 / 264
- '한달 임금 34만원', 기아 노조원 27일 분신/98. 6. 3 2 1138 / 267
- 86차 ILO 연례총회, "아동노동 종식 추진"/98. 6. 20 1 1150 / 292
- 노숙 농성 잇따라-비용바다, 질병 교통 호소/98. 6. 25 2 1153 / 299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 대전성모병원 노조, 명동성당 농성 돌입 - 노동법총파업 이유 해고 항의/98. 1. 9 2 1039 / 32
- 정리해고 칼날 앞... 생존전략은 투쟁뿐 - 대우정보 밀어부치기식 해고/98. 3. 13 2 1081 / 129
- 말쟁마다 조직폭력배 등장 - 매일노동뉴스 기자, 취제도중 폭행 당해/98. 4. 7 1 1098 / 170
- (주)원실업 폭력 시비/98. 4. 7 1 1098 / 170
- 김대중 정부, 본색 드러내 - 국민대 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98. 4. 28 2 1113 / 203
- 세계일보 노조 단식돌입, 회사측 부당노동행위 시정없이 묵묵부답/98. 5. 28 1 1134 / 252
- '유인물 배포' 이유 해고 - 한화 계열 (주)오트론, 부당노동행위 판처/98. 6. 3 2 1138 / 267
- 여성 해고자 복부 구타, 대전성모병원/98. 6. 12 2 1144 / 280
- (주)모나미 노동자 농성투쟁 - 유인물 배포로 해고/98. 6. 18 2 1148 / 289
- 의료노동자 수난시대 - 병원마다 부당노동행위 극성/98. 6. 19 1 1149 / 290
- 구사대 동원한 가톨릭 사업장 - 대전 성모병원, 노조간부 집단 구타/98. 6. 19 2 1149 / 292
- 누굴 위한 '외자유치'인가 - 일본인 인수기업, 노동기본권 탄압/98. 6. 26 1 1154 / 300

<한국타이어>

-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⑩ 박용용(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98. 1. 17 2 1045 / 45
- 인권유린 고발 기자, 법정에 - 한국타이어 보도관련 명예훼손 혐의/98. 1. 20 1 1046 / 46
- 한국타이어 고발 기자에 유죄선고,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백만원/98. 4. 9 2 1100 / 175
- '교통의 성역, 배불리는 자본 - 순이익 줄고도 주식배당액 늘어/98. 4. 28 1 1113 / 202
- 지옥같은 노동현장 - 한국타이어 노동자 "여기는 교도소"/98. 5. 12 1 1122 / 225

- 유일한 휴식공간이 '화장실'/98. 5. 12 2 1122 / 226

<실업·해고>

- 민주노총, 재벌개혁 없는 정리해고 반대/98. 1. 13 1 1041 / 35
- 시민사회계, "정리해고 강행 반대· IMF재협상· 재벌개혁 촉구"/98. 1. 15 2 1043 / 41
- 여성단체연합 총회, 성차별적 여성해고 규탄/98. 1. 24 1 1050 / 55
- 민노총 지도부 국민회의 농성 돌입 - 사회단체, 정리해고 반대 한 목소리/98. 2. 5 2 1055 / 71
- 대우조선 노동자 최대팀씨, 정리해고 항의 분신사망/98. 2. 14 1 1062 / 85
- 붓물터진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전국적 기승/98. 3. 7 2 1077 / 120
- 해고· 임금체불· 노조탄압 극성 -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98. 3. 20 1 1086 / 141
- "2월말 실업자 3백48만명" - 국민승리21, 전국실업자동맹 조직화 착수/98. 4. 16 1 1105 / 185
- 실직노숙자 인권보장 촉구, 국회인권포럼 2차 심포지엄/98. 5. 9 2 1121 / 224
- "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 국민승리 21 등, 실업대책 촉구 캠페인/98. 5. 15 1 1125 / 231
- 재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강 해고자 서울역 노숙/98. 5. 27 1 1133 / 250
- 주거권· 일자리 요구, 무주택자 종묘공원 집회/98. 6. 10 2 1142 / 276
- 민노총 실직자 돕기 캠페인/98. 6. 18 2 1148 / 289

<재벌개혁>

- "재벌, 별장부터 내나라" 경제위기 고통, 노동자 일방 부담/98. 1. 8 1 1038 / 29
- 시민사회계, "정리해고 강행 반대· IMF재협상· 재벌개혁 촉구"/98. 1. 15 2 1043 / 41
- 민교협· 민변 등 11개단체, 재벌개혁 공대위 구성키로/98. 1. 20 1 1046 / 46
- 김우중 회장 추대식장, "전경련 해체" 시위/98. 3. 13 2 1081 / 131
- 전국연합, "IMF 재협상, 재벌개혁" 촉구집회/98. 4. 16 2 1105 / 186
- 범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 결단 촉구/98. 5. 27 1 1133 / 250
- "재벌개혁 제일 미흡", 교수 1백여 명 설문조사/98. 6. 11 2 1143 / 278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 뭉친다, 정규직보다 열악한 노동조건/98. 5. 7 1 1119 / 219
-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 실업대책 사각지대/98. 6. 11 1 1143 / 277

<여성노동자>

- 여성단체연합 총회, 성차별적 여성해고 규탄/98. 1. 24 1 1050 / 55
-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고용유지· 사회적 평등 촉구/98. 3. 10 2 1078 / 122
- 기혼여성노동자 고통심각, 고용불안· 취업상당 급중/98. 4. 17 2 1106 / 188
- 여성실업대책본부 발족, '여성차별· 소외' 시정 촉구/98. 6. 10 2 1142 / 276
- 기혼여성 구직자 증가, 해고· 남편 실직 등 이중고/98. 6. 13 2 1145 / 282

<택시노동자>

- 택시노조 위원장 분신 증태, 노조탄압· 완전월급제 파기에 항의/98. 1. 27 1 1051 / 57
- 택시노조, 권오영 씨 분신 관련 집회/98. 2. 10 2 1058 / 77
- 택시노동자 한광로 씨 분신, 회사측 직장폐쇄에 항의/98. 6. 11 2 1143 / 278

<민주노총>

- 민주노총 최명아 부장 운명/98. 2. 25 1 1069 / 99
- “노동자 넋을 달래자” - 금속산업연맹, 진혼굿 펼쳐/98. 3. 21 2 1087 / 144
- 민주노총·국제연대행동 네트워크, 노동조건 후퇴 압력 미 규탄/98. 3. 25 2 1089 / 149
- 다시 머리띠를 묶는다 - 벼랑에 몰린 노동자들, 총력투쟁 결의/98. 3. 28 1 1092 / 154
- 민주노총, 명동성당 농성 돌입 - 고용안정·부당노동행위척결 촉구/98. 3. 31 2 1093 / 158
- ‘단협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 민주노총, 현재 앞 시위/98. 4. 9 2 1100 / 175
- 민주노총·전교조 등, 공무원 임용취소 철회 요구/98. 4. 17 2 1106 / 188
-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총파업 실질적 조직화/98. 4. 23 2 1110 / 197
- “외자유치, 만병통치 아니다”, 민주노총 2기 노사정위 불참/98. 5. 7 2 1119 / 220
- 대통령 특단 촉구, 민주노총 “5·27 총파업” 확인/98. 5. 26 1 1132 / 248
- “불가피한 선택”, 민주노총 총파업/98. 5. 28 1 1134 / 252

<전교조>

- 전교조 문제 국제사회에 호소 - 호주 교원노조대회 참가/98. 1. 20 2 1046 / 47
- 전교조, 합법화 따른 대국민담화 발표/98. 2. 10 2 1058 / 77
- 민주노총·전교조 등, 공무원 임용취소 철회 요구/98. 4. 17 2 1106 / 188

16.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 IMF시대 외국인노동자 시련, 체불임금 못받고 해고때도 영순위/98. 1. 9 1 1039 / 31
- 불법체류 단속, 외국인노동자·기업주 모두 고통 - 3D업종 구인난/98. 2. 27 1 1071 / 103
-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온존 -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유지/98. 3. 19 2 1085 / 140
- ‘연수취업제’ 도입 강력 반발 - 외국인노동자 단체 규탄시위·성명/98. 3. 24 2 1088 / 146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키로/98. 3. 26 1 1090 / 150
- 외국인노동자 위한 목요기도회/98. 4. 3 1 1096 / 166
- 임금체불·산재 등 발목 잡아, 외국인노동자 피해 접수센터 개설/98. 4. 10 2 1101 / 177
- <요약>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부정책 비판문, “상품 취급 말라”/98. 4. 11 2 1102 / 179
- 오도가도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에 벌금 이중고/98. 6. 16 2 1146 / 284
- 김 대통령, 외국인노동자 벌금제 개선 지시/98. 6. 19 2 1149 / 291
- <현장스케치>외국인노동자 시위 “벌금 낼 돈 없어요”/98. 6. 24 1 1152 / 296

17. 빈민·노점상

- 목숨까지 앓아간 노점단속, 강남역 봉어빵 노점상 급사/98. 2. 19 2 1065 / 92
- 98빈민대회, 노점상·철거민 생존권투쟁 결의 다져/98. 2. 21 2 1067 / 96
-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98. 3. 21 1 1087 / 143
- 노점상 4천명 집회/98. 6. 13 2 1145 / 282

18. 어린이·청소년

- 황폐화된 교정, 버려진 아이들 - 경기여상, 1년 지나도록 비정상 운영/98. 3. 4 1 1074 / 113
- 머리 길다고 라이터볼로 지저, 서울 모공고 ‘교사폭력’ 물의/98. 4. 4 1 1097 / 168
- <기자수첩> ‘라이터 교사’의 항변, “머리가 길면 탈선합니다”/98. 4. 7 1 1098 / 170
- ‘반딧불’로 부활하는 두밀분교, 마을주민 문화공간으로/98. 5. 9 1 1121 / 223
- ‘사랑의 매 어디까지’, 학생체벌지침 논란/98. 5. 14 1 1124 / 229
- 용기있는 학부모들의 승리, 학교운영위 바른 정착 이끌어/98. 5. 22 2 1130 / 245
- 86차 ILO 연례총회, “아동노동 종식 추진”/98. 6. 20 1 1150 / 292

19. 여성

- 여성단체연합 총회, 성차별적 여성해고 규탄/98. 1. 24 1 1050 / 55
- 우조교 변호인단, 여성운동상 수상 - 이문열 씨, 여성인권 결립들 선정/98. 3. 4 1 1074 / 113
- 여성운동, ‘고용·폭력·정치참여’ 주목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98. 3. 7 2 1077 / 120
-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고용유지·사회적 평등 촉구/98. 3. 10 2 1078 / 122
- 정당방위 구축자 석방운동, 7월 가정폭력방지법 시행/98. 5. 29 3 1135 / 256
- 한소리회 후원모집/98. 6. 9 2 1141 / 274

<성폭력>

-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피해 통계발표 -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줄어/98. 1. 15 2 1043 / 41
- 성희롱 승소판결이 남긴 과제, 성희롱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98. 2. 24 2 1068 / 98
- 서울대 성폭력추방운동 확산, 학생회별 회칙 제정 활발/98. 4. 22 2 1109 / 295
- 한국성폭력상담소, 온라인 성폭력 상담소 개설/98. 6. 18 2 1148 / 289

20. 장애인

- 장애인 월간지 『함께 걸음』 10주년, 따듯한 정책·훈훈한 미담의 10년/98. 3. 12 2 1080 / 127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의시설 고발전화 개설/98. 4. 15 1 1104 / 183
- ‘소외계층 고통전가’ 비판- 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98. 4. 18 1 1107 / 189
- 사회적 통합 위한 교육 절실, 독일 시각장애인학교장 특강/98. 4. 25 2 1112 / 201

<에바다농아원 사태>

- 에바다 사태 4백32일 경과, 재단측 버티기·평택시 유착 시비/98. 2. 3 2 1053 / 66
- 감사원, 에바다 비리 특감 - 평택시·재단간 유착의혹 초점/98. 2. 7 1 1057 / 74
- <기자수첩> 시장님은 ‘줄대기’중 - ‘인권’ 두고 거래하는 평택시장/98. 3. 13 2 1081 / 129
- 에바다농아원생, 자민련 앞 시위 - 김선기 평택시장 공천 항의/98. 4. 14 2 1103 / 181
- 에바다투쟁, 5백28일 경과 - 대통령 입장표명 촉구/98. 5. 9 2 1121 / 224
- 에바다농아원생 후원회원 모집/98. 6. 16 2 1146 / 284
- 에바다 사태 새 국면 - 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제출/98. 6. 17 2 1147 / 287

21. 동성애자

- "동성애, 비정상인가" - 동성애자인권연합 등 토론회/98. 5. 13 2 1123 / 228
- 동성애 대학생 목매 자살, 가정에서 외면받고 최후 선택/98. 5. 20 1 1128 / 239
- "차별에 맞서 하나로" - 동성애 모임, 전국적 협의체 구성/98. 6. 30 1 1156 / 306

22. 학원

- 고려대 학생회, "학원사찰 여건" 주장/98. 1. 14 2 1042 / 39
- 한총련 수배자 주변인도 고통 - 친인척 물론, 어머니 동창생까지 시달려/98. 1. 20 1 1046 / 46
- 교육부, 각대학 신입생에 '한총련 비난' 유인물 배포 발생/98. 2. 21 1 1067 / 95
- <요약>교육부가 대학신입생에게 보낸 글, 서울대총학생회 반박 성명/98. 2. 21 2 1067 / 96
-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한총련 전원석방 촉구/98. 2. 25 1 1069 / 99
- 한상권 교수 출근투쟁 전개, 이사진 교체 불구 덕성여대 사태 미해결/98. 3. 6 2 1076 / 118
- 대학원론 탄압 극성 - 편집권 침해·기자 해임 잇따라/98. 3. 26 2 1090 / 151
- <기자수첩> '정보통제' 위해 팩스·인터넷 사용 불허/98. 3. 27 1 1091 / 152
- 6기 한총련 탄압 인정 못해, 연세대총학생회·전국학생연대 주장/98. 4. 9 2 1100 / 175
- "한총련 평화집회 보장하라", 사회단체·한총련 비주류대학 성명 잇따라/98. 4. 10 1 1101 / 176
- "평화적 행사 치르겠다" - 한총련, 대의원대회 일단 유보/98. 4. 11 1 1102 / 178
- '평화' 짓밟는 '국민의 경찰', 한총련 대의원대회 폭력 난무/98. 4. 14 1 1103 / 180
- 경찰, 곳곳에서 대학생 마구잡이 연행 - 노학연대 차단 목적인 듯/98. 4. 29 2 1114 / 205
- 4·30 청년학생투쟁대회 열려 - 위기의 대학, 민중연대로 돌파구/98. 5. 1 2 1116 / 211
- KNCC, 학생탄압 우려·자의적 구속 규탄/98. 5. 13 2 1123 / 228
- <현장스케치> 해 넘긴 복직투쟁, 한상권 교수/98. 5. 28 2 1134 / 253
- 각계인사, "한총련 이적 매도 중단" 및 "집회와 시위 자유 보장" 촉구/98. 5. 30 1 1136 / 257

23. 인권교육

- 대학 인권교육 강좌 늘어, 이론화 작업 시급/98. 3. 5 1 1075 / 115
- 97년 인권사회학 강의내용(대구대)/98. 3. 5 1 1075 / 115

24. 환경

- 영광주민 60일째 침묵시위, 원전 5·6호기 건설문제 마찰/98. 2. 4 2 1054 / 69
- 영광군민, 핵폐기물 저장고 건설 반대/98. 2. 28 1 1072 / 105
- (주)한화 정준희 씨 자살사건 파문, '폐수방류' 지시에 번민하다 자살/98. 4. 8 1 1099 / 172
- "타살 다름없는 죽음" - 환경련, 정준희 사건 조사 발표/98. 4. 15 2 1104 / 184

25. 평화

- 한반도 평화·군축을 우리 손으로 - 여성평화한마당, 방위비 삭감 요구/98. 5. 26 2 1132 / 249

<대인지뢰>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코언 미국방 발언 강력 비난/98. 1. 23 1 1049 / 53
- 노벨평화상 조디 윌리엄스 방한, 대인지뢰금지 여론형성 계기될 듯/98. 1. 24 1 1050 / 55
- 정의평화정보센터, 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규탄/98. 1. 24 1 1050 / 55
- 대인지뢰금지 캠페인 돌입, 조디윌리엄스 방한/98. 2. 4 1 1054 / 68
- <표> 92-97년 지뢰로 인한 사상자 현황/98. 2. 4 1 1054 / 68
- 조디 윌리엄스 발언요지 - "대인지뢰금지,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98. 2. 4 2 1054 / 69
- 25년전 지뢰사고, 조만선 씨의 비극/98. 2. 5 1 1055 / 70
- <인터뷰>조계국 목사 - 조디 윌리엄스 방한이 남긴 것/98. 2. 6 2 1056 / 73

26. 북한

- 범민련 민경우 씨 등,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98. 1. 23 1 1049 / 53
- 청년정보문화센터, 나진·선봉지구 탁아소에 송금/98. 2. 27 2 1071 / 104
- 북한 식량지원 국제연대, 세계 70개 도시서 4월 25일 '국제금식의 날'/98. 3. 5 2 1075 / 116
- 북 주민 3백여명 사망 추정 - 불교운동본부, 식량난민 4백여명 면접조사/98. 3. 11 1 1079 / 124
- <'97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식량부족, 자유권조약 탈퇴 선언..."/98. 6. 26 2 1154 / 301

27. 주한미군

- 주한미군, 국민 허리 조른다 - 올 한해 방위비분담금 4억달러 달해/98. 1. 22 1 1048 / 51
- 미군, 거저먹는 땅장사 - 군산미군기지, 비행장 사용료 되레 인상/98. 3. 6 1 1076 / 117
- 군산지역 사제단, 해방 후 미군기지 내 최초 시위/98. 3. 12 2 1080 / 127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등, 미군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규탄/98. 3. 21 2 1087 / 144

28. 국제인권소식

- 팔레스타인 구속자, 감옥서 하루만에 사망/98. 2. 5 2 1055 / 71
- 우드로후원회 일본대사관 앞 항의시위/98. 2. 13 2 1061 / 83
- 남아공, '교도소 포화' 항의 파업- 미국, 아동학대로 하루 3명꼴 사망/98. 3. 21 2 1087 / 144
- 아프리카, 외채에 늘린 생존권/98. 6. 6 2 1140 / 272
- 멕시코 정부군, 사빠띠스마 침공/98. 6. 13 2 1145 / 282
- 콩고민주공화국, 인권운동가의 정치적 실종/영국, 최악의 오염/98. 6. 20 2 1150 / 293
- 영국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98. 6. 27 1 1155 / 303

<동티모르>

- "동티모르 인권 지지"호소- 노벨상 수상자 호르타 씨, 김 대통령에 서한/98. 4. 21 2 1108 / 192

- 멀기만 한 독립의 봄, 동티모르 인권보장 촉구/98. 5. 23 2 1131 / 247
- 동티모르 인권유린 여전, 수하르트 물러나도 무력진압 계속돼/98. 6. 17 2 1147 / 287

<유엔인권위원회>

- 유엔,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난항/98. 2. 28 1 1072 / 105
- 54차 유엔인권위 개막/98. 3. 17 2 1083 / 136
- 54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향후 50년 새로운 인권을 설계할 때"/98. 3. 18 1 1084 / 137
-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연설요지/98. 3. 18 1 1084 / 137
- 유엔인권위, 빈곤·분배등 사회권 강조,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등 논의/98. 3. 25 1 1089 / 148
- 유엔인권위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평화적 저항의 권리" 명문화/98. 4. 8 2 1099 / 173
- <요약> '인권운동가 선언' 초안/98. 4. 8 2 1099 / 173
- 정부대표단, 유엔인권위서 "국내 민간단체 주장 신빙성 없다"고 주장/98. 4. 9 1 1100 / 174
-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제소 가능/98. 4. 11 1 1102 / 178

29. 민간단체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 민주노총·국제연대행동 네트워크, 노동조건 후퇴 압력 미 규탄/98. 3. 25 2 1089 / 149
- 국제연대행동 네트워크, 미 상공회의소 규탄시위/98. 3. 27 1 1091 / 152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정세토론회/98. 1. 27 2 1051/ 5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98. 2. 13 2 1061 / 83
- <요약>인권관련 개혁제안서(민변 제출) - 새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98. 2. 14 2 1062 / 86
- 민변·참여연대, 법조비리 철저수사 촉구/98. 2. 18 1 1064 / 89
- 사회권운동 필요성 강조, 민변 창립기념 인권 심포지움/98. 5. 30 1 1136 / 257
- <발제>10주년 기념 심포지움-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서준식)/98. 6. 3 3 1138 / 268
- <발제>10주년 기념 심포지움-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이대훈)/98. 6. 4 2 1139/ 270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정세토론회/98. 1. 27 2 1051/ 58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가협·전국연합, 양심수 전원석방 캠페인 돌입/98. 2. 7 1 1057 / 74
- 선별석방 반대·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거리서명 1만명/98. 2. 20 1 1066 / 93
- 3월 현재 양심수 3백62명, 민가협 13차 정기총회 가져/98. 4. 25 2 1112 / 201
- '현상금 3백만원' - 민가협, 이근안 수배/98. 6. 12 1 1144 / 279
- <목요집회>→ <양심수>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가협·전국연합, 양심수 전원석방 캠페인 돌입/98. 2. 7 1 1057 / 74
- "양심수 석방·안기부 해체" 주장/98. 2. 17 1 1063 / 87
- "IMF 재협상, 재벌개혁" 촉구집회/98. 4. 16 2 1105 / 185
- "석탄특사, 양심수 포함하라", 법무부장관에 공개서한/98. 4. 25 2 1112 / 201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선정 '참교육상' 수상/98. 5. 28 2 1134 / 253
- 경찰에 맞서지 말라? -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 브리핑 방해/98. 6. 24 1 1152 / 296
-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98. 6. 25 1 1153 / 298
- <불심검문 캠페인>→<집회 및 시위의 자유> <서준식 사건>→<양심수>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 월간지 『함께 걸음』 10주년, 따끔한 정책·훈훈한 미담의 10년/98. 3. 12 2 1080 / 127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의시설 고발전화 개설/98. 4. 15 1 1104 / 183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로

<정의평화정보센터(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 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규탄/98. 1. 24 1 1050 / 55
-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⑬ 문만식(<평화와 인권> 편집장)/98. 5. 8 2 1120 / 222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주한미군>으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사회보장개혁위 구성 제안, 김 당선자 사회보장정책 후퇴 비판/98. 1. 8 2 1038 / 30
- 연회동 시위, "전·노 재산 몰수" 주장/98. 1. 10 2 1040 / 34
- 민변·참여연대, 법조비리 철저수사 촉구/98. 2. 18 1 1064 / 89
- "비리 법조인 즉각 소환" 촉구/98. 2. 19 2 1065 / 92
- 참여연대, 검찰 발표 비난 "의정부 지청 계수사" 촉구/98. 3. 7 1 1077 / 119
- '고스톱 의원' 13명 검찰 고발/98. 4. 21 2 1108 / 192
- 참여연대, 시민운동상 수상/98. 5. 16 2 1126 / 234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새해 첫 시국기도회, "양심수 석방" 촉구/98. 1. 24 2 1050 / 56

<청년정보문화센터>

- 청년정보문화센터, 나진·선봉지구 탁아소에 송금/98. 2. 27 2 1071 / 10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인권위원회>

- KNCC인권위, 제조사 겨울나기 후원 - 서울지역 1백명 제조사에 온정/98. 1. 9 2 1039 / 32

-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98. 3. 20 2 1086 / 142
- 외국인노동자 위한 목요기도회/98. 4. 3 1 1096 / 166
- KNCC, 학생탄압 우려· 자의적 구속 규탄/98. 5. 13 2 1123 / 228

<한국성폭력상담소>

-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피해 통계발표 -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줄어/98. 1. 15 2 1043 / 41
- 한국성폭력상담소, 온라인 성폭력 상담소 개설/98. 6. 18 2 1148 / 289

<한국여성단체연합>

- 여성단체연합 총회, 성차별적 여성해고 규탄/98. 1. 24 1 1050 / 55
-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 여연, '위안부 개인배상' 촉구/98. 4. 17 1 1106 / 187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인권협 대표단, 김대중 면담에서 "인권을 국정지표로 할 것"등 요청/98. 2. 3 1 1053 / 65

<국제인권단체>

-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위원회, 제주 4·3 진상규명 탄압 중지 요구/98. 1. 13 2 1041 / 36
- 국제법률가협회·국제펜클럽, 서준식 씨 석방 촉구/98. 1. 24 2 1050 / 56
- 세계고문방지기구, 진관스님 석방 촉구/98. 2. 4 2 1054 / 69
- 엠네스티, 장기수 신인영씨 석방 촉구·한국 교도소 의료실태 개선도 요청/98. 2. 7 1 1057 / 74
- 엠네스티, "한국엔 양심수 더 있다"/98. 2. 7 1 1057 / 74
- 일본 전국회의,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양심수 석방 탄원/98. 2. 11 2 1059 / 77
- 방한중인 엠네스티 대표단, 양심수 가족 만나/98. 2. 24 1 1068 / 97
- 국제엠네스티 방한, 양심수 석방촉구 활동/98. 2. 24 1 1068 / 97
- 엠네스티,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요청/98. 2. 25 1 1069 / 99
- 엠네스티, 전국회의 성명, 장기수 선별석방 '실망'/98. 3. 14 2 1082 / 134
- 아시아인권위, 이장희교수 출금해제 요청, 공동행동 촉구/98. 3. 25 1 1089 / 148
- 대만인권촉진회, 서준식 씨에 성금/98. 4. 3 2 1096 / 167
- 국제엠네스티, 파업권 존중 촉구/98. 5. 28 1 1134 / 252
- <인터뷰> 엠네스티 방한단, "김대중 정권에 실망"/98. 6. 24 2 1152 / 297
- <'97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북한 "심각한 식량부족..."/98. 6. 26 2 1154 / 301
- <'97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98. 6. 26 3 1154 / 302

30. 기타

- 인권선언 제정 50주년, 전세계 기념행사 줄이어/98. 1. 7 2 1037 / 28
- <취재수첩> '인권'없는 개혁논의(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에 다녀와서)/98. 1. 14 2 1042 / 39
- <요약>인권관련 개혁제안서(민변 제출) - 새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98. 2. 14 2 1062 / 86
- 인권활동가들, 새 정부 인권개혁 전망- "경제·사회적 권리 후퇴 예상"/98. 2. 26 1 1070 / 101
- '정의평화상', 라파엘 크리닉 -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 펼쳐/98. 3. 10 1 1078 / 121
- 14개 단체, '청년회의 준비위' 결성 - 진보정당 건설 목표/98. 3. 11 1 1079 / 124

- "이사람들이었다" - <내일신문>, '고스톱 의원' 9명 공개/98. 3. 20 1 1086 / 141
- 참여연대, '고스톱 의원' 13명 검찰 고발/98. 4. 21 2 1108 / 192
- KBS 개혁프로 불방 규탄, "시민단체 연대행동" 촉구/98. 5. 7 2 1119 / 220
- 국내단체 인니대사관 앞 시위, 수하르트 하야·인권탄압 중단 촉구/98. 5. 19 2 1127 / 237
-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씨, 행정소송 승소/98. 5. 21 1 1129 / 242
- 시민 정보공개청구 운동 출범/98. 5. 21 1 1129 / 242
- <현장스케치> 재미동포들의 명동, 모란공원 방문/98. 6. 6 2 1140 / 272
- 전면적 민주개혁 촉구, 6·10 11주년 기념대회/98. 6. 11 2 1143 / 278
- 과학, '인류의 적'일 수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합의회의' 예정/98. 6. 16 1 1146 / 283
- 영양제 맞던 대학생 급사 - 인천 성모자에 병원 의료과실사 논란/98. 6. 17 2 1147 / 287
- '비리폭로' 공무원 해임 - 「너는 그렇게...」 저자 이용호 씨/98. 6. 23 2 1151 / 295
- <인터뷰> 염규홍(국내 최초 인권출판사 설립)/98. 6. 26 2 1154 / 301

<국회인권포럼>

- 국회의원 16명, 인권포럼 구성 - 인권문제 연구, 입법 과정 반영/98. 3. 5 2 1075 / 116
- "우리도 한국사람입니다" - 국회인권포럼, '해외입양인 인권' 토론/98. 4. 18 2 1107 / 190
- 실직노숙자 인권보장 촉구, 국회인권포럼 2차 심포지엄/98. 5. 9 2 1121 / 224

<신자유주의와 IMF>

- IMF시대 인권, 총체적 위기 -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 워크샵/98. 1. 21 1 1047 / 49
- <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워크샵 - IMF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98. 1. 22 2 1048 / 52
- '자본'대 '반자본', 스위스에서 각각 국제행사/98. 2. 4 2 1054 / 69
- "신자유주의 반대, 지구적 민중행동" 촉구, PGA 보고대회/98. 4. 4 2 1097 / 169
- <발췌> 지구적민중행동(PGA)선언문/98. 4. 4 2 1097 / 169
- 'NO! MAI!' 항의행동, '자본 세계화' 맞선 '인권·환경' 사수/98. 4. 30 1 1115 / 206
- IMF희생자 위령제 - "사회적 타살 중단하라"/98. 6. 23 1 1151 / 294

<아시아인권현장선언대회>

- '아시아인권현장' 5월 광주서 선포 - "빈곤과 억압으로부터의 인권보장"/98. 4. 15 2 1104 / 184
- 아시아민중 인권의지 집약, 아시아인권현장 선언대회 개막/98. 5. 16 1 1126 / 233
- <토론> 제1주제: 아시아 인권현실의 재확인/98. 5. 16 1 1126 / 233
- <인터뷰> 아이아(인도 전 대법관)/98. 5. 16 3 1126 / 235
- <토론> 제2주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아시아가 직면한 문제들/98. 5. 16 3 1126 / 235
- '급진적 평등'의 필요성 확인, 아시아인권현장 선언대회 17일 막내려/98. 5. 19 1 1127 / 236
- <발췌> 아시아인권현장/98. 5. 20 2·3 1128 / 239·240

<유서대필 사건>

- '유서대필' 감정 김형영씨, 사기 혐의로 또 구속/98. 2. 11 1 1059 / 78
- '유서대필 사건' 언론도 제수사·재심 요구/98. 2. 12 2 1060 / 81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TV 방영/98. 3. 13 1 1081 / 128

31. 고정란

<인권시평>

- 분노와 사랑의 슬픔(차병직 변호사)/98. 1. 13 3 1041 / 37
- <기고> 당면경제위기의 의미와 대안(김상조 한성대 교수)/98. 1. 20 3 1046 / 48
- 긴 호흡의 인권운동(장호순 순천향대 교수)/98. 2. 3 3 1053 / 67
- DJ정권 시기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오창익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98. 3. 10 3 1078 / 123
- <기고> 감옥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홍근수 목사)/98. 3. 18 2 1084 / 138
-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의 출발(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98. 3. 24 3 1088 / 147
- 국제민중연대의 준비를 위하여(박천웅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98. 4. 14 3 1103 / 182
- 아프리카 추장이 온다고 해도(오창익)/98. 4. 21 3 1108 / 193
- <기고> 다자간투자협정과 자본의 세계화(이창근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대표)/98. 5. 1 3 1116/ 213
- 노동절에 생각하는 「백만 마리의 고양이」(박래군)/98. 5. 5 3 1118 / 218
- 족쇄에 묶인 사람들(박천웅)/98. 5. 19 3 1127 / 238
- 아무튼 한총련은 안된다(오창익)/98. 6. 2 3 1137 / 265
- 월드컵,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박래군)/98. 6. 16 3 1146 / 285
- 곤봉으로 매맞는 외국인노동자(박천웅)/98. 6. 30 3 1156 / 308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 ⑩ 박용용(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수배의 고통 속에서도 /98. 1. 17 2 1045 / 45
- ⑪ 헤아래집 식구들(에바다농아원 농성단)- '골리앗'에 맞선 '다윗'들/98. 2. 18 2 1064 / 90
- ⑫ 손민영- 감옥에도 인간이 살 수 있어야 한다/98. 3. 27 2 1091 / 153
- ⑬ 문만식(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평화와 인권> 편집장)/98. 5. 8 2 1120 / 222

<인권간행물>

- 「철야, 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개마서원)/98. 1. 10 2 1040 / 34
- 「대인지뢰금지, 현실과 과제」(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도서출판 민중사)/98. 2. 7 2 1057 / 75
- 「97 정보통신검열백서」(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엮음)/98. 2. 21 1 1067 / 95
- 「외로운 저항」(천주교 제주교구 젊은사제 모임/빛두레)/98. 2. 25 2 1069 / 100
- 「프라이버시와 인권」(제임스 마이클/유네스코 펴냄)/98. 3. 7 2 1077 / 120
-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장호순/개마고원)/98. 3. 18 2 1084 / 138
- 「4·3은 말한다 5」(제민일보 4·3 취재반/전예원)/98. 3. 25 2 1089 / 149
- 「언론의 제주 4·3 보도에 관한 연구」(김광우)/98. 4. 3 2 1096 / 167
- 「환영받지 못한 손님」(허창수 엮음/분도출판사)/98. 4. 15 1 1104 / 183
- 「편의시설 다시보기」(김정열 등/장애인편의시설추진모임)/98. 4. 22 1 1109 / 194
-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노라 칼린/책갈피)/98. 4. 29 1 1114 / 204
- 「빼앗긴 목소리를 찾아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역)/98. 5. 27 2 1133 / 251
- 「언론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한겨레신문전국독자주모임/살림터)/98. 6. 24 2 1152 / 297

<인권영화>

- 「비공개」 「프론트」/98. 1. 23 2 1049 / 54
- 「스위트 컨트리」/98. 2. 27 2 1071 / 104

• 「22일간의 고백」/98. 5. 29 3 1135 / 256

<사랑방만평>

- 고통분담/98. 1. 8 1 1038 / 29
- 불평등 행형 - 풀려나는 권력자, 갇힌 일반수/98. 1. 15 1 1043 / 40
- 양심수와 수배자/98. 1. 22 1 1048 / 51
- 대인지뢰/98. 2. 5 1 1055 / 70
- 유서대필사건과 사기꾼 감정사/98. 2. 12 1 1060 / 80
- 노사정 합의엔 정치권/98. 2. 19 1 1065 / 91
- 양심수/98. 2. 26 1 1070 / 101
- 경기여상/98. 3. 5 1 1075 / 115
- 전주교도소/98. 3. 12 1 1080 / 126
- 기만적인 3·13 사면조치/98. 3. 19 1 1085 / 139
- 불심검문/98. 3. 26 1 1090 / 150
- 생존권 외면하는 정부/98. 4. 2 1 1095 / 164
- 덮어지는 안기부개혁/98. 4. 9 1 1100 / 174
- 실업/98. 4. 16 1 1105 / 185
- 일본군 위안부/98. 4. 23 1 1110 / 196
- 의문사·열사 진상규명/98.5. 1 1 1116 / 211
- 참담한 가정의 탈/98. 5. 7 1 1119 / 219
- 변화 없는 '국민의 정부'/98. 5. 14 1 1124 / 229
- 실종된 5·18정신/98. 5. 22 2 1130 / 245
- 노동자 일방 매도하는 언론/98. 5. 29 1 1135 / 254
- 버스 안의 CCTV/98. 6. 12 2 1144 / 280
- 전자주민카드/98. 6. 19 1 1149 / 290
- 경찰권력의 횡포/98. 6. 27 2 1155 / 304

<주간인권흐름>

- 97년 12월 22일 - 98년 1월 4일/98. 1. 6 2 1036 / 26
- 1월 5일 - 1월 11일/98. 1. 13 2 1041 / 36
- 1월 12일 - 1월 18일/98. 1. 20 2 1046 / 47
- 1월 19일 - 1월 25일/98. 1. 27 2 1051 / 58
- 1월 27일 - 2월 1일/98. 2. 3 2 1053 / 66
- 2월 2일 - 2월 8일/98. 2. 10 2 1058 / 77
- 2월 9일 - 2월 15일/98. 2. 17 2 1063 / 88
- 2월 16일 - 2월 22일/98. 2. 24 2 1068 / 98
- 2월 23일 - 3월 1일/98. 3. 3 2 1073 / 112
- 3월 2일 - 3월 8일/98. 3. 10 2 1078 / 122
- 3월 9일 - 3월 15일/98. 3. 17 2 1083 / 136
- 3월 16일 - 3월 22일/98. 3. 24 2 1088 / 146
- 3월 23일 - 3월 29일/98. 3. 31 2 1093 / 158

| | |
|--|-----------|
| · 3월 30일 - 4월 5일/98. 4. 7 2 1098 | / 171 |
| · 4월 6일 - 4월 12일/98. 4. 14 2 1103 | / 181 |
| · 4월 13일 - 4월 19일/98. 4. 21 2 1108 | / 192 |
| · 4월 21일 - 4월 26일/98. 4. 28 2 1113 | / 202 |
| · 4월 27일 - 5월 3일/98. 5. 5 2 1118 | / 217 |
| · 5월 4일 - 5월 10일/98. 5. 12 2 1122 | / 226 |
| · 5월 11일 - 5월 17일/98. 5. 19 2 1127 | / 237 |
| · 5월 18일 - 5월 24일/98. 5. 26 2 1132 | / 249 |
| · 5월 25일 - 5월 31일/98. 6. 2 2 1137 | / 264 |
| · 6월 1일 - 6월 7일/98. 6. 9 2 1141 | / 274 |
| · 6월 8일 - 6월 14일/98. 6. 16 2 1146 | / 284 |
| · 6월 15일 - 6월 21일/98. 6. 23 2 1151 | / 295 |
| · 6월 22일 - 6월 28일/98. 6. 30 2 1156 | / 307 |
| <월목차> | |
| · 98년 1월 총목차(1036호-1052호)/98. 1. 31 3·4 1052 | / 61·62 |
| · 98년 2월 총목차(1053호-1072호)/98. 2. 28 2·3 1072 | / 106·107 |
| · 98년 3월 총목차(1073호-1093호)/98. 4. 1 2·3 1094 | / 162·163 |
| · 98년 4월 총목차(1094호-1115호)/98. 4. 30 2·3 1115 | / 207·208 |
| · 98년 5월 총목차(1116호-1136호)/98. 5. 30 2·3 1136 | / 258·259 |

<인권하루소식> 합본 10

펴낸날 · 98년 8월
 펴낸이 · 서준식
 펴낸곳 · 인권운동사랑방

주소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인터넷 접속주소 <http://www.chollian.net/~rights/>

값 1만원